

碩士學位論文

太宰 治 문학에 나타난 女性像

- 「ヴィヨンの妻」를 중심으로 -

指導教授 秦 恩 淑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日語教育專攻

白 允 娃

2001年 8月

# 太宰 治 문학에 나타난 女性像

-「ヴィヨンの妻」를 중심으로-

指導教授 秦 恩 淑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01年 5月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日語教育專攻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提出者 白 允 娃

白允娃의 教育學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2001年 7月

審査委員長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이 붕괴된 상황에서 강인한 생명력을 갖는 새로운 여성을 그린 작품이 나타난다. 인간의 삶 속에 인위적인 일체의 중압감과 구속으로부터 해방되어 절대자유의 경지를 구현하기 위한 도덕혁명을 일으키는 「斜陽」의 가즈코, 신의 존재, 죄의식, 전후 현실에 대한 고뇌 속에서 가정에서 이탈하여 거리에서 헤매는 무뢰한 남편과는 대조적으로 과장된 행동도, 심각한 표정도 없이 내일의 일을 근심하지 않고 세상의 윤리와 도덕, 풍습에 조금도 구애되지 않는 체념에 가까운 강인함을 보여 준 「ヴィヨンの妻」의 아내는 새로운 타입의 여성상이라 할 수 있다. 이후의 일련의 여성독백체의 여성들도 「ヴィヨンの妻」의 아내와 같이 새털처럼 가볍게 현실의 무게, 삶의 무게를 털어 버린 경지에 이른 모습을 보여준다. 이에 반해 그녀들의 남편들은 가정을 두려워하고 항상 밖에 머물며, 현실에 안착하지 못한 채 시대와 존재에 고뇌하고 방황한 끝에 결국 죽음으로 치닫는다. 이렇게 전후 다자이의 문학에는 <가정>, <집>을 구심으로 하는 윤리도덕을 파괴하거나, 그것이 붕괴된 상황에서 새로운 행복을 구하는 신형의 여성상의 조형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다자이는 기성의 윤리도덕의 핵심인 가정을 저버리지 못하는, 누구보다도 예민한 윤리감각의 소유자였다. 그러한 점을 감안할 때 다자이는 새로운 윤리와 기존의 윤리의 사이에서 갈등과 고뇌 끝에, 그리고 전후사회에 대한 절망 끝에 자신의 생과 문학을 자살로 마감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 목 차

국문초록 .....	i
I. 서 론 .....	1
II. 다자이 문학에 나타난 여성상 .....	6
1) 모성적 여성상 .....	7
2) 잔인한 여성상 .....	13
3) 강인한 여성상 .....	15
4) 기타 여성상 .....	19
III. 「ヴィヨンの妻」에 있어서의 여성상 .....	22
1) 남편像 .....	26
2) 아내像 .....	36
IV. 다자이 후기소설에 나타난 여성상 .....	45
V. 결 론 .....	50
참 고 문 헌 .....	53
Abstract .....	57

# I. 서론

한 작가가 그 시대와 자기 자신에게 내놓은 독자적인 문제를 그 문학세계를 통해 정밀하게 검토하는 일은 곧 작가연구의 근간이 될 뿐 아니라 문학과 시대풍조 및 침몰해 버린 사회상의 일모를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 특히 한 작가가 그가 삶을 영위했던 당시대의 <문제>를 누구보다도 가장 철실하게 직접 겪음으로서, 고뇌와 수난의 생애를 살았다면 그 문학에 투영된 문화와 시대, 사회를 표상하고 있는 <문제>는 그 의미하는 바가 더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의 근·현대의 문인 중에서 다자이 오사무(太宰 治 : 1909-1948. 이하 다자이라 칭한다)를 본고의 대상으로 하여 그 고유한 운명과 독자적인 문제를 검토하려는 의도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다자이는 「문제」를 지니고 있는 작가라 할 수 있으며, 그의 소설의 한 제명을 빌린다면 <二十世紀旗手>, 그것도 고뇌의 기수였기에 다자이 문학은 우리에게 깊이와 친근감을 동시에 안겨준다.

다자이는 1909년 일본 本州의 北方 변방 津輕지방의 신흥대지주로 青森県 議員과 귀족의원을 지낸 津島源右衛門과 어머니 夕子 사이의 열 남매 중의 六男, 津島修治로 태어났다. 일반상식의 견지에서 볼 때, 더할 나위 없이 혜택 받은 조건이지만, 그러나 이런 혜택받은 탄생의 조건이 곧 다자이의 죄의식과 갈등, 고뇌의 발단과 근원이 되었다. <죄, 탄생의 시각에 있노라> (「生まれてすみません」), 즉 <탄생은 곧 죄>라는 일종의 원죄의식 같은 것을 그의 생이 끝나는 날까지 불식할 수가 없을 만큼 그는 결벽하고 예민한 윤리의식의 소유자였다. 그럼에도 그의 실생활은 기존의 윤리나 상식을 역행하는 역설적인 것이었다.

그의 탄생을 전후하여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의 암살사건과 大逆事件<sup>1)</sup>이 일어났다. 러일전쟁, 청일전쟁의 양 전쟁을 거쳐 메이지 국가의 절대주의 체제의 위용이 정립되었던 시대를 거쳐, 군벌주의와 태평양전쟁, 패전에 따른 미증유의 윤리공백의 혼란기에 이르는 일본의 근·현대사의 방류를 타고 허우적거린 일생이었다. 길지도 않은 그 생애동안 수차에 이른 자살미수의 경력 끝에 급기야 전후 혼란기인 1948년에 처와 세 자녀를 남겨두고 전쟁미망인 야마자키 도미에(山崎富栄)와 玉川上水에 투신, 석연치 않은 정사로 39년의 생애를 끝냈다.

전후 사이비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자들이 신형사상에 편승하여 저마다 숙연한 위엄과 위선으로 선남선녀연하는 세상 속에서 그는 무뢰를 선언함으로 세상에 서항하다 절망과 패배감의 심연에서 인간의 진실을 추구하려던 끝에 스스로 인간실격의 초조에서 헤어날 수 없게 되었다. 그의 자살원인이 그 한 개인의 심리적 심연에 흐르는 무의식의 불안일 뿐 아니라, 시대와 사회의 저류에 고여 있는 패전을 맞은 일본인들의 공통의 절망감이나 문제의 상징이었다고도 할 수 있다. 짧은 생애에도 불구하고 그의 작품 속에 투영된 다자이의 정신세계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의 문제이자 근본적인 인생과 죽음, 그리고 인간의 문제가 잘 녹아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다자이의 문학세계는 청춘의 문학으로서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 오늘날까지도 모든 이들, 특히 젊은이들에게 강한 생명력으로 다가간다. 그렇기 때문에 다자이의 삶이 더 절실하게 느껴지고, 그가 고뇌하고 방황한 본질적 내면의 세계가 전해져 온다.

1) 1908년 이래 桂内閣은 사회주의자에 대한 본격적 탄압에 착수하였고, 이에 사회주의자들은 천황제 타도를 계획한다. 가쓰라 내각은 이것을 기회로 1910년 5월, 전국의 사회주의자, 아나키스트 등 수백 명을 검거, 이 중 26명을 천황암살모의의 대역죄로 몰아 기소, 이듬해 1911년 1월 18일 고토쿠 슈스이(幸徳秋水) 등 24명에게 사형을 선고하였다. 슈스이 등 12명이 판결 후 일주일도 못되는 1월 24일 사형에 처해졌고 12명은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다. 이 사건에 의하여 일본의 사회주의 운동은 철저하게 탄압되어, 일시 질식상태가 되었다. (高柳光芳 外, 『日本史辞典』, 角川書店, 1986, p.573)

다자이의 문학적 생애는 작가 이전의 습작기까지 포함하면 비교적 긴 작품 활동을 벌여 왔다. 그의 작품은 그 생의 궤적과 작품의 특성에 따라서 습작기, 전기·중기·후기의 삼기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처녀작 「魚服期」(1933)로 시작하여 「HUMAN LOST」(1937)로 종결되는 전기는 좌익운동의 시기로, 다자이의 문학의 본질을 규정짓는 중요한 시기였다. 자기의 주변을 둘러싸고, 전향, 여자, 집, 돈의 사회적 인간적 모든 문제와 그것의 물질적 현실적 기반에서 쏟아나는 불안, 허무, 절망, 모순 등 자의식 과잉에서 인간적 탈출을 모색하고, 객관적 현실과 주체적 자아와의 완전통일성을 문학의 토대로 지향하고자 다자이가 방황했던 시기였다. 자아의 분열, 실생활에 있어서 즐거움의 상실, 현실에서의 자기의 존재의 규정성의 상실을 문학의 주제로 하여, 현실적 고뇌를 관념적으로 해결하려고 한 그의 생활태도와 문학관념은 그의 창작방법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 「道化の華」(1935) 등의 작품에서는 분열한 자아가 절망적인 자기부정과 자조적 자기공정을 주장하면서 혼란한 착란의 자세로 등장하고, 허다한 주인공들은 분열한 작가의 분신인 것이다.

중기는 「滿願」(1938)에서 「お伽草紙」(1945) 사이로, 1937년 중국과의 전면전쟁의 개시부터 패전까지로 戰時文學이 팽배했던 때였다. 일본에서 가장 비극적 혼란이 지배했던 시대로 개인의 자질이 강력한 정치적 시대의 조류에 변용되었던 시기이기도 했다. 다자이는 전기의 혼란을 거쳐 생활과 문학에서 전환점이 찾아오는데 바로 결혼과 가정이었다. 평범한 결혼을 하고 생활도 안정의 방향으로 향하긴 하나 실제로는 상대적인 안정기에 지나지 않았다. 전기의 자아의 분열에 대한 위기의식의 해결도 없었고 착잡한 기분으로 그는 자신의 심정의 초조함을 정리했다. 그의 예민한 감수성과 죄의식은 소멸되지 않았으나 계급대립의 격렬함이 없어짐과 더불어 어깨의 짐도 점차 가벼워지게 된다. 실생활과 생활심정에서의 안정은 창작방법에도 영향을 끼쳐, 아름다운 터치로

여러 작품을 완성하였다. 그가 「女生徒」(1939), 「女の決闘」(1940)등에서 창작 방법의 모험으로 <여성독백체>를 시도했던 것도 바로 이 시기에 해당한다.

후기는 패전후의 혼란시기로 「苦惱の年鑑」(1946)에서 시작되어, 「ヴィヨンの妻」(1947)를 하나의 전기로 「斜陽」(동)를 거쳐 「桜桃」(1948), 「人間失格」(동), 「グッド・バイ」(동)로 종결된다. 전쟁이 끝나고 전후사회는 크게 전환했지만 패전의 사회는 다자이가 원하던 대로 변하지 않았다. 무너지기 시작한 계급대립은 격화했고 역사적 현실의 추이는 다자이의 주관을 결정적으로 흔들며 중기의 이른바 상대적 안정기는 파괴되었다. 신시대의 편승적 사상에 반발하며, 보수파·무리파를 선언했고, 그의 전후 작품 또한 그의 암담한 심경과 상실감이 절실히 나타나 있다.

다자이는 습작기에서 후기에 이르기까지 <여성>이란 모티브를 끊임없이 탐구한 작가이다. 특히 중기 이후는 타자로서 <여성>을 발견하면서, <여성독백체>형식을 자유로이 구사하여 만년에 이르기까지 여성독백체의 작품을 많이 창작했다. 이 중에서 「女生徒」(1939), 「ヴィヨンの妻」(1947), 「斜陽」(1947)는 다자이의 문학을 대표하는 걸작이라 일컬어진다.

이처럼 다자이에게 있어서 <여성>은 그의 삶과 문학의 출발점이며 동시에 귀착점이었고, 따라서 <여성>·<여성독백체>란 문제는 곧 다자이 문학의 기초를 이루는 요인으로, 그의 문학의 비밀을 푸는 키워드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자이에 있어서의 <여성>이란 문제는 주로 그의 출생과 가정환경에 중심을 둔 작가론에 치중되어 있어<sup>2)</sup>, 작품에 입각한 논문은 아직 본격적인 단계에 이르지 않아 검토의 여지가 많이 남아 있다. 이를 해명하는 작업은 곧 다자이의 문학, 특히 중기와 후기 다자이의 문학의 성격을 논하는 지름길이 되리라고 여겨진다.

2) 小堀杏奴의 「太宰治の女性観」(『近代文学鑑賞講座19』, 角川書店, 1959), 梶木 剛의 「太宰治の基調—母恋」(『三冊の講座日本の近代文学・太宰治』, 有精堂, 1983) 등 다수.

따라서 다자이 문학에 나타난 <여성상>을 검토하기 위하여, 본고는 우선 다자이 문학 속에 나타난 여성상을 세 유형으로 분류하여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한 후에, 전후 다자이의 여성독백체의 최고걸작으로 평가받는 「ヴィヨンの妻」를 중심으로 그 속에 나타난 여성상을 고찰하고, 동시대에 창작된 「父」(1947), 「おさん」(1947), 「桜桃」(1948), 「家庭の幸福」(1948) 속에 나타난 여성상과 비교 고찰하여, 후기 다자이 문학의 특질을 살펴보려고 한다.

본고의 인용은 筑摩書房 간행 『太宰治全集』(1981)를 텍스트로 삼았다.



## II. 다자이의 문학에 나타난 여성상

전기에서 여성이 주인공이 된 작품을 살펴보면 「無間奈落」(1929), 「魚服記」(1933), 「思ひ出」(동), 「葉」(1934) 등을 들 수가 있다. 이 작품 군에 보이는 특징은 유년기의 심리적 외상, 모성에 대한 한없는 동경을 그리고 있으며, 그 안에서 안도와 평화를 찾고 있는 반면에 평범한 순종형의 여성을 보여주고 있다. 대지주의 아들이라는 특별한 자기환경탈피의 잠재성과 외향적으로는 순수함을 보여주고 있지만, 한편으로 그 안에는 작가의 음울한 사고와 고뇌의 시대상황과 환경이 담겨져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여성독백체가 시작된 중기의 여성을 주제로 한 작품을 살펴보면 「女生徒」(1939), 「葉桜と魔笛」(동), 「皮膚と心」(동), 「女人訓戒」(1940), 「女の決闘」(동), 「きりぎりす」(동) 등을 들 수가 있다. 교양 있고 총명한 아내의 내조, 사랑과 더불어, 안정감, 여유, 평안함 등을 여성 특유의 어투와 감각, 특색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작품 속에서 작가는 과거의 좌절을 밟고 새로운 이상의 실현의 꿈을 자신의 시야에 놓으면서, 근저에는 작가 자신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서정성이 풍부한 여성특유의 감상과 심리를 나타내고 있는 이 시기의 여성독백체의 작품의 경향은 안정되고, 밝고 청순한 내용을 담은 것이 많으나 그 기저에는 예리한 지성과 같은 사색으로 포착된 세계가 특이한 감각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러한 여성독백체의 작품은 후기에 접어들면서 「ヴェイヨンの妻」(1947), 「斜陽」(동), 「おさん」(동) 등으로 이어진다. 이 여성독백체의 작품은 중기와는 그 양상을 조금 달리하면서, 자기의 가치관을 타파할 정도의 로맨티시즘을 추구하는가 하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여성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그 안에는 절망적 상황을 참나적 재치와 감각으로 또한 돌발적이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며 스

스로의 삶을 찾아가는 여성의 모습이 있으나, 그 반대편에는 여성과는 달리 남성의 죽음이 항상 암시되어있다.

이 여성독백체의 소설은 점차 소멸해가고 나중에는 파멸해가고 쓰러져 가는 남자들이 중심이 되는 작품이 등장하게 되는데 「父」(1947), 「桜桃」(1948), 「家庭の幸福」(동)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작품들 속에서는 가정을 포기한 채 방황하는 남편,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그들의 아내들의 모습은 상반되게 비춰짐으로서 여성특유의 강인함을 보여주고 있다.

위에서 보듯이 다자이 작품 속에 보이는 여성은 결코 똑같지 않아, 동시기의 작품 속에서도 여성의 묘사는 미묘한 차이가 있어, 작품 속에 보이는 여성상은 끊임없이 변하는 양상을 띄고 있다. 여기서 우선 다자이의 작품 속에 나타난 여성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크게 세 유형으로 나누면서 그 특질을 논하기로 한다.



## 1) 모성적 여성상

다자이의 문학의 특징의 하나는 모성적 존재를 추구한 글쓰기였다. 다자이의 전 작품의 기저에는 유년기에 있어서의 모성으로부터의 소외의 감각을 근원으로 하는 <母恋い>의 모티브<sup>3)</sup>가 흐르고 있다.

나의 어머니는 훌륭한 어머니죠. 그리고 아름다운 어머니죠. (중략) 확실히 나는 죽기 전에 다시 한번 아름다운 어머니를 만나고 싶다는 일념뿐이었어요. (중략) 나는 평범한 시골아낙네가 될거예요. 나만이 아니고, 무쓰코도 시골아낙네로 키울거예요. 나는 지금의 일본의 정치가, 사상가, 예술가, 그 누구에게도 기대고 싶지 않아요. わたしの母は、立派な母です。そして、それから、美しい母です。 (中略) たしかにわたしは死ぬ前にいまいちどあたしの美しい母に逢いたい一念からだったのです。(中略)わたしは、ただの百姓女になります。あたしだけでなく、睦子をも、百姓女にしてしまうつもりです。わたしは今の日本の、

3) 梶木 剛, 앞의 글, p.12

政治家にも思想家にも芸術家にも誰にもたよる気が致しません。4)

희곡작품인 「冬の花火」(1946)에서 주인공 가즈에(数枝)는 계모인 아사(あさ)를 신뢰하고 사랑한다. 전후 일본에 실망한 그녀는 애인과 헤어지면서도 어머니가 있는 고향으로 돌아와 평범한 시골아낙네가 되어 농사를 지으면서 도원향을 구하려는 희망을 가슴에 품고 귀향한다.

「パンドラの匣」에서도 <일본의 어머니> <연정이라기 보다는 친애의 정을 품게하는> <바른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인 간호사 다케(竹さん)도 어머니와 같은 존재로 그려져 있다.

언제나 묵묵히 밝은 미소를 짓고, 잔소리나 쓸데없는 세상이야기 따위는 결코 하지 않고, 다른 간호부들과 혼자 떨어져서 우두커니 서 있는 느낌이다. (중략) 道場の 사람들은 아직 조용히 자고 있다. 다케 간호부는 언제나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청소를 하는 걸까. 나는 입이 잘 열리지 않고, 단지 가슴을 두근거리면서 그녀가 걸레질을 하는 모습을 보고 있었다. (중략) 발만이 아니고, 내 마음속 구석까지 깨끗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 기묘하고 무서운 욕망도 사라졌다.

いつも黙って明るく微笑んで愚痴も言わず、つまらぬ世間話など決してしないし、他の助手さんたちから、ひとり離れて、ずっと立っている感じた。(中略)道場の人たちは悉く、まだ、しずかに眠っている。竹さんは、いつもこんなに早く起きて掃除をはじめていたのであろうか。僕は、うまく口がきけず、ただ胸をわくわくさせて竹さんの拭き掃除の姿を見ていた。(中略)足だけでなく、僕の心の奥の隅まで綺麗になったような気がした。あの奇妙な、おそろしい慾望も消えていた。5)

여기서 묘사되고 있는 간호사 다케는 내면이 아름다운 여성으로 표현되고 있다. 주인공인 <나>는 그녀의 아름다운 용모보다는 인간성에 끌리게 되어 사모하게 된다. 간호사 다케의 인간성이란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부드럽고 한없이 넓은 모성애와 비슷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성으로서의 여성을 초월한 자연이나 어머니와 같은 존재로 그려지는 것이 바로 다케라는 여성의

4) 太宰 治, 「冬の花火」, 『太宰治全集9』, 筑摩書房, 1981, pp.389-390

5) 太宰 治, 「パンドラの匣」, 『太宰治全集8』, 筑摩書房, 1981, pp.89-90

이미지이다.

또한 「斜陽」에서 가즈코(數子)의 어머니(お母さん)가 <일본 최후의 귀부인이었던 나의 어머니><sup>6)</sup>라고 표현되듯 전후의 혼란한 상황 속에서 선천적으로 솔직·순수한 자연적인 존재로서 그려지고 있다. 전후의 혼란에 휩쓸리지 않고, 죽는 순간까지 귀족적 자세를 잃지 않는 어머니에게서 다자이는 그가 원하던 잃어버린 고향, 즉 변하지 않고 추억 속에 남아있는 모성을 느끼고 있는 지도 모른다.

이러한 일련의 작품들에서 보이는 모성적 존재의 추구는 다자이의 성장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다자이는 자기 언급적인 작품으로 여겨지는 「思ひ出」(1933)에서,

어머니에 대해서도 나는 친근감이 없었다. 유모의 젖으로 자랐고 숙모의 품에서 나는 초등학교 2, 3학년 때까지 생모를 몰랐었다. (중략) 어머니에 대한 추억은 쓸쓸한게 많았다.

母に対しても私は親しめなかった。乳母の乳で育てて叔母の懷で大きくなった私は、小学校の二三年のときまで母を知らなかったのである。(中略)母への追憶はわびしいものが多い。<sup>7)</sup>

생모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다고 고백하듯 태어나자마자 병약했던 어머니 대신 숙모 기에(きえ)와 유모 다케(たけ)가 그를 키웠고, 30여명의 고용인들 중 20여명의 여자들 틈 속에서 자란 성장과정은 그의 여성관에 큰 영향을 끼쳤으며, 아버지와 형이 중심이 되는 가부장적인 엄격한 질서와는 반대 환경인 여자들 속에서 자란 그는 자연스럽게 <안식의 장소>로서 <모성><sup>8)</sup>을 갈구하게 되었다. 그러나 어머니로부터의 소외는 더욱더 그로 하여금 모성을 갈구하게 만들고, 한없이 내면의 여성적, 육감적 세계에 머물게 하여 다양한 여성과

6) 太宰 治, 「斜陽」, 『太宰治全集9』, 筑摩書房, 1981, p.225

7) 太宰 治, 「思ひ出」, 『太宰治全集1』, 筑摩書房, 1981, p.29-30

8) 安藤 宏, 「太宰文學における<女性>」, 『解釋と鑑賞』64卷9号, 至文堂, 1999.9, p.17

접하게 만들었다. 궁극적으로 그가 갈망하는 여성은 어머니의 자애로운 품과 같은 존재였고 그런 그의 원망은 「津軽」(1944)에서 다케라는 여성상으로 아름답게 형상화된다.

‘슈지다’ 나는 웃으면서 모자를 벗었다.

‘어머니’ 그거 뿐이었다. 웃지도 않았다. (중략) 그렇지만 나에게에는 아무런 불만도 없었다. 완전히 안심하고 있다. 다리를 아무렇게나 뻗은 채 멍하니 운동회를 보며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다. 이젠 아무래도 좋다고 생각될 정도 無憂無風 상태였다. 평화라든가 이런 기분을 말하는 것일까. 만약 그러면 나는 이 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마음의 평화를 체험했다고 말해도 좋다. 작년에 돌아가신 생모는 기품있고 부드럽고 훌륭한 어머니였지만, 이와 같은 불가사이한 안도감을 나에게 주지는 않았었다. 세상의 어머니라는 존재는 모두 자기 아이에게 이와 같은 달콤한 방심의 휴식을 주는 것일까.

「修治だ。」

私は笑って帽子をとった。「ああ」それだけだった。笑ひもしない。(中略)けれども、私には、何の不満もない。まるで、もう、安心してしまってる。足を投げ出して、ぼんやり運動会を見て、胸のなかに一つも思ふ事がなかった。もう、何がどうなってもいいんだ。といふやうな全く無憂無風の情態である。平和とは、こんな気持の事を言ふのであろうか。もし、さうなら、私はこの時、生れてはじめて心の平和を体験したと言ってもよい。先年なくなった私の生みの母は、気品高くおだやかな立派な母であったが、このやうな不思議な安堵感を私に与へてはくれなかった。世の中の母といふものは、皆、その子にこのやうな甘い放心の憩ひを与へてやつてゐるものなのだらうか。<sup>9)</sup>

다케와의 재회에서 슈지(修治)는 어린시절 유모였던 그녀에게 어머니에게서 느낄 수 있는 <無憂無風> <마음의 평화> 라는 <불가사이한 안도감> <달콤한 방심의 휴식>을 느끼고 있다. 편안한 안식처이자 자애로운 어머니의 품, 그것이 그가 바라던 모성적 여성상이며 그는 그 여성상을 숙모 기에와 유모 다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다자이가 성인이 된 후에 만난 여성들, 작품 중에 묘사된 여성들은 각자의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어떠한 여성에게도 느낄 수 없었던 안도감, 불가사이한 평화로운 세계를 다자이는 고향의

9) 太宰 治, 『津軽』, 『太宰治全集7』, 筑摩書房, 1981, p.162

소박한 유모에게 느낀다. 여기에서는 <영원의 어머니>와 같은 <모성적인 여성>에 대한 다자이의 동경을 엿볼 수 있으며, 그의 이상향이던 아나키즘도 원풍도 이러한 모성적인 여성의 시선에 의하여 수호되는 감미로운 유토피아였다.

그러나 모성적인 존재였던 숙모와 유모 다케를 위시한 주위 여성들이 하나 하나 상실되어 가는 모습이 「思ひ出」속에 묘출 되어 있다.

어느 날 밤 숙모가 나를 버리고 집을 나가는 꿈을 꾸었다. 숙모의 가슴은 현관문 가득했다. 그 빨갭게 불어난 커다란 가슴에서 땀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중략) 숙모가 나를 흔들어 깨웠을 때 나는 이부자리에서 숙모의 가슴에 얼굴을 비비며 울고 있었다. 잠에서 깨어난 뒤에도 나는 슬픔이 가시지 않아서 오랫동안 훌쩍거렸다. ある夜、叔母が私を捨てて家を出て行く夢を見た。叔母の胸は玄関のくぐり戸いっぱいふさがってゐた。その赤くふくれた大きい胸から、つぶつぶの汗がしたたってた。 (中略) 叔母が私を揺り起した時は、私は床の中で叔母の胸に顔を押しつけて泣いてゐた。眼が覚めてからも、私はまだまだ悲しくて永いことすすり泣いた。<sup>10)</sup>

숙모의 상실을 예감한 어린 다자이의 공포를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숙모 기에는 다자이 곁을 떠나간다. 또 세 살부터 여덟 살까지 키워준 유모 다케 역시 다자이와 헤어진다.

그 외는 언제나 다케와 같이 지냈다. 세 살부터 여덟살까지 나는 다케에게 교육받았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문득 잠을 깨어 다케를 불렀지만 다케는 내게 오지 않았다. 아, 하고 깨달았다. 뭔가 직감적으로 눈치챘다. 나는 큰소리로 울었다. 다케가 없다. 나는 단장이 끊어지는 느낌으로 울었고, 이삼일 동안 훌쩍거리고만 있었다. 지금도 그 때의 괴로움을 잊을 수 없다.

その他はいつもたけと一緒に暮したのである。三つから八つまで、私はたけに教育された。さして、或る朝ふと眼をさまして、たけを呼んだが、たけは来ない。はっと思った。何か、直感で察したのだ。私は大声挙げて泣いた。たけはいない。と断腸の思いで泣いて、それから二三日、私はしゃくり上げてばかりいた。いまでも、その折りの苦しさを、忘れてはいない。<sup>11)</sup>

10) 太宰 治, 「思ひ出」, 『太宰治全集1』, 筑摩書房, 1981, p.24

이처럼 어머니로부터의 소외, 불신과 버려졌다는 공포심이 여성일반에 대한 다자이의 인식으로 이어지고 그를 심중 자살행위로 치닫게 하는 요인의 되기도 한다.<sup>12)</sup>

다자이는 이러한 모성적 존재를 추구하는 글쓰기를 하였으나, 전후사회에 대한 실망과 새로운 사회에 걸었던 희망이 사라지자, 다자이의 심경에 변화가 나타났다. 그 변화는 전후의 모성적 존재가 차차 자멸하거나 더럽혀져서 죽어 가는 모습으로 형상화되는데, 이러한 모성적 존재의 상실은 다자이의 전후 작품의 특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冬の花火」에서 계모는 마을 청년에게 더럽혀져 죽어 가는 존재이며,

도원향, 유토피아, 농사꾼 (중략) 바보 같다. 모두 바보 같다. 이게 바로 일본의 현실 인거야. (중략) 자, 일본의 지도자들, 나를 구해 주소서. 가능합니다까, 가능하냐구요. (중략) 예이, 맘대로 하세요. 나는 도쿄에 있는 좋아하는 남자에게 갈거예요. 떨어질 때까지 떨어질거예요. 이상 이건 나발이건 그런게 무슨 소용이 있죠.

桃園郷, ユートピア, お百姓、(中略) ばかばかしい。みんな、ばかばかしい。これが日本の現実なのだよ。(中略) さあ、日本の指導者たち、私を救って下さい。出来ますか、出来ますか。(中略) えい、勝手になさいだ。あたし、東京の好きな男のところへ行くんだ。落ちるところまで落ちて行くんだ。理想もへちまもあるもんか。<sup>13)</sup>

따라서 가즈에의 이상향도 사라져 단지 겨울의 불꽃처럼 되고 만다.

「パンドラの匣」의 이상적 여인 다케도 결국에는 건강도장의 원장과 결혼하게 되어 주인공의 손이 닿을 수 없는 곳에 존재하게 되어 버리고, 「斜陽」에서도 최후의 귀족, 자연과도 같은 어머니가 죽음으로써 결국은 작가가 바라던 이상향이 사라져 버리게 된다.

이러한 어머니들은 일본의 공동체의 戦後적인 表象으로<sup>14)</sup>, 전후 다자이의

11) 太宰治, 「津軽」, 『太宰治全集1』, 筑摩書房, 1981, pp.149-150

12) 饗定孝男, 『太宰治論』, 講談社, 1975, pp.47-48

13) 太宰治, 「冬の花火」, 『太宰治全集8』, 筑摩書房, 1981, p.394

14) 安藤 宏, 「太宰文学における〈女性〉」, 『解釈と鑑賞』64卷9号, 至文堂, 1999.9, p.17

좌절과 희망의 상실은 곧 작품 속의 주인공들이 가슴에 품었던 유토피아의 꿈의 붕괴와 상실을 의미하여 결국은 이러한 모성적 존재의 죽음으로 형상화된다.

이는 급격한 전후 혼란기의 사회상의 반영과 더불어 다자이 자신의 내면과 생활의 변화로 인해 작품은 암울한 내용과 냉소적인 형태로 흐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자신이 머물던 가정이 오히려 자유로운 마음을 속박하는 방해물로 보게 된 다자이는 선천적인 원죄의식, 윤리의식과 세속적 인생으로의 반역정신이 두 아이의 가장인 자기를 매몰해 가는 것으로 생각하게 된다. 이런 일련의 생각들은 그가 그리던 이상적 모성적 존재도 점차 사라져가게 한다. 다자이는 어디에서도 모성을 찾을 수 없었기에 절망하였고 그래서 그의 작품 「人間失格」의 주인공이 마지막 그린 그림이 그가 그토록 그리고 싶어 하던 마리아가 아니라 더럽혀진 모성이라는 일그러진 초상이며, 데포르메였던 것도 다자이의 이런 심경을 반영한 것인지도 모른다.

## 2) 잔인한 여성상

모성적인 존재의 죽음과 병행하여, 전후의 다자이의 작품에는 타자로서의 여성 특히 여성의 <잔인성>을 그린 작품이 급격히 두드러지게 눈에 띈다. 잔혹한 여성은 중기 『御伽草紙』(1945)의 「カチカチ山」 속에 등장하는 16세의 토끼의 모습에도 그려져 있다. 토끼는 자기에게 홀딱 반한 노총각 너구리의 못생긴 외모와 검은 피부가 마음에 들지 않다는 즉 단지 여자의 생리적인 혐오 때문에 너구리를 학대, 죽음에 이르게 한다. 다자이는 결말부분에,

반하는 것이 잘 못인가. 예로부터 세계 문학 속의 애화라고 하는 주제는 모두 이것 하나에 걸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여성에게는 모두 이런 무자비한 토끼

가 한 마리 살고 있으며, 남성에게는 그 선량한 너구리가 언제나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惚れたが悪いか。古来、世界中の文芸の哀話の主題は、一にここにかかっていると云っても過言ではあるまい。女性にはすべ、この無慈悲な兎が一匹仕んでゐるし、男性には、あの善良な狸がいつも溺れかかってあかいてゐる。<sup>15)</sup>

여성에게는 무자비한 토끼가 한 마리 살고 있으며, 처녀의 잔인성은 마치 악마 같다고 서술하며, 잔인한 여성을 형상화하고 있다.

전후는 이러한 양상이 더욱 심해져서 <불가사이할 정도 무서운 여성의 잔인성>을 그린 「男女同権」(1946)이 나온다. 어릴 때는 어머니에게서 성인이 되어서는 잔인한 세 명의 처에게 학대받고 버림받은 끝에 결국에는 그 잔인한 여자들 속에서 도망쳐 나오는 체험의 이야기이다. 여성 중에서 가장 천대받는 창녀마저,



여성 중에서 가장 천대받는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그 창녀마저 나에게 있어서는 무서운 천둥번개 신이나 마찬가지로였습니다.

女性のうちで最もいたげられ悲惨な暮らしをしていると言われているあのおいらんでさえ私にとっては実におそろしい雷神以外のものではなかったのです。<sup>16)</sup>

무서운 신처럼 두려워하는 주인공은 결국 인생에서 실패하여, 자신이 형편없는 노인이 되어버린 이유는,

나는 지금까지 여성이라는 종족 때문에 지독한 일들을 당했습니다. 내가 오늘날 이러한 형편없는 노인이 되어 버린 것도 모든 게 이 여자라는 존재 때문이 아닐까 하고 남몰래 생각 할 정도입니다.

私は今まで女性というもののために、ひどいめにばかり逢って来たのでございます。私がこんにち、このようなダメな老人いってしまったのも、すべてこれ、女性のせいではなかるうかとさえ、私はひそかに考えているのでございます。<sup>17)</sup>

15) 太宰 治, 「カチカチ山」, 『太宰治全集9』, 筑摩書房, 1981, p.380

16) 太宰 治, 「男女同権」, 『太宰治全集8』, 筑摩書房, 1981, p.303

<모든게 이 여자라는 것 때문이 아닐까 하고 남몰래 생각 할 정도랍니다>  
라고 넘두리한다.

또한 다자이가 말년에 쓴 「人間失格」은 요조(葉蔵)라는 주인공의 성장과정과 함께 여성들과의 관계를 그리고 있는데, 마지막 제3수기에 이르러 거의 광인이 되어버린 주인공과 자신의 말을 무시하고 경시해 버리는 늙은 식모와의 생활을 보여줌으로서 주인공은 이제 행복도 불행도 없는 광인, 폐인과 같은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 <나는 인간인 여성 쪽이 남성보다 몇 배 난해했다><sup>18)</sup>라며, 여자는 불가사이한 존재여서 이해하기가 힘들다는 주인공의 심경은 곧 다자이 자신의 육성으로 들린다.

### 3) 강인한 여성



여성의 강인함과 생명력을 그린 작품, 「ヴィヨンの妻」(1947), 「父」(동), 「女神」(동), 「斜陽」(동), 「おさん」(동)도 전후 다자이의 특징의 하나이다. 작품 속의 여성들은 매우 낙천적이고 자유를 갈망하고 남자보다 강한 면모를 보여주며 심지어는 모든 걸 초월한 경지에서 현실을 받아들이고 체현하는 모습을 구현하기도 한다. 자칫 절망 속으로 빠져들기 쉬운 상황에서도 여성 특유의 생의 감각으로 세상의 윤리도덕이란 가치조차 넘어서는 「ヴィヨンの妻」의 샷창(しゃちゃん), 전후 저널리즘의 비평으로 스스로 십자가에 오른다는 유서를 남기고 다른 여자와 동반자살한 남편의 유해를 찾으러 가는 기차 속에서,

마음을 가볍게 확 바꿀 수 있는 것이 진정한 혁명으로 그것만 되면 어떤 어려운 문제도 없을 것입니다. 아내에 대한 기분하나 바꾸지 못하면서 무슨 혁명의 십자가나고 세 아이를 데리고 남편의 유해를 찾으러 스와로 가는 기차 안에서 슬프거나 화가

17) 太宰治, 앞의 글, p.297

18) 太宰治, 「人間失格」, 『太宰治全集9』, 筑摩書房, 1981, p.418

나기보다도 어이없고 기가막혀서 몸부림쳤습니다.

氣の持ち方を軽くくりと変えるのが眞の革命でそれさえ出来たら何のむずかしい問題もない筈です。自分の妻に対する氣持一つ変える事が出来ず革命の十字架もすさまじいと三人の子供を連れて夫の死骸を引取りに諏訪へ行く汽車の中で悲しみとか怒りとかいう思いよりも呆れかえった馬鹿々々しさに身悶えしました。19)

자신의 기분을 가볍게 바꾸는 것이 진정한 혁명이라고 외치는 오산(おさん)은 남편 중심이었던 자신의 삶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삶에 대한 강한 애착과 새로운 도덕혁명을 찾는 여성으로 변모한다.

또한 「斜陽」에서 어머니와 동생에게는 회박했던 생명력으로 귀족계급의 몰락이라는 상황 속에서 기성사회에 과감한 도전을 하는 가즈코(數子)에게서도 이러한 강인한 여성의 모습을 찾을 수 있다.

나에게는 꼭 싸워서 쟁취해야만 하는 것이 있다. 새로운 윤리.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위선같다. 사랑, 그것뿐이다. 로자<sup>20)</sup>가 새로운 경제학에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었던 것처럼 나는 지금 사랑 하나에 매달리지 않으면 살아 갈 수 없다.  
私には是非とも、戦いとらなければならぬものがあつた。新しい倫理。いいえ、そう言つても偽善めく。恋。それだけだ。ローザが新しい経済学にたよらなければ生きておれなかつたように、私はいま、恋一つにすがらなければ、生きて行けないのだ。21)

여기서 우리는 가즈코가 현실과 타협에 실패하고 귀족적 죽음을 택한 그의 남동생과 달리 살아가는 것의 의미를 사랑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으로 전진하면서 인간은 사랑과 혁명을 위해 산다라는 슬로건 하에 새로운 모럴을 개척하려는 <전투개시><sup>22)</sup>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아래의 말에서 더욱

19) 太宰治, 「おさん」, 『太宰治全集9』, 筑摩書房, 1981, p.284

20) 로자록셈부르크 (Rosa Luxemburg 1870-1919) 폴란드 출생의 독일여류혁명가, 경제학자. 취리히대학에서 동물학, 정치학, 경제학을 배우고, 독일사회민주당좌익 및 폴란드 혁명운동의 이론적 지침자가 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 중에 스파르타군단을 조직하고 전후 독일공산당을 창립하여 활동중 좌익장교에게 암살되었다. 저서로는 「자본의 축적」, 「사회민주주의의 위기」 등이 있다.

21) 太宰治, 「斜陽」, 『太宰治全集9』, 筑摩書房, 1981, p.225

뚜렷하게 보인다.

아무래도 당신도 저를 버린 것 같군요. 아니, 점점 저를 잊어 가시는 것 같군요. 그렇지만, 나는 행복하답니다. 내가 바랬던 대로 아기가 생긴 것 같아요. 나는 지금 모든 걸 잃어버린 듯합니다만 그래도 뱃속에 작은 생명이 나에게 고독의 미소를 머금게 합니다. (중략) 나는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마리아가 설령 하느님의 아들이 아닌 아이를 낳더라도 마리아에게 빛나는 자긍심이 있다면 聖母子가 될 수 있답니다. 나에게서 오랜 도덕을 태연히 무시하고 좋은 아이를 얻었다는 것에 만족하답니다. どうやら、あなたも、私を捨てになったようでございます。いいえ、だんだんお忘れになるらしゅうございます。けれども、私は、幸福なんですの。私の望みどおりに、赤ちゃんが出来たようでございますの。私は、いま、いっさいを失ったような気がしていますが、でも、おなかの小さい生命が、私の孤独の微笑のたねになっています。(中略) 私は、勝ったと思っています。マリアが、たとい天の子でない子を生んでも、マリアに輝く誇りがあったら、それは聖母子になるのでございます。私には、古い道徳を平氣に無視して、よい子を得たという満足があるのでございます。22)

결혼을 하지 않아도 아이를 낳을 수 있고 성모자가 될 수 있다면서 낡은 기성윤리, 도덕의 파괴를 위해 과감히 싸우고, 태양과 같이 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여성에 대한 메세지이며, 사랑과 혁명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여성의 새로운 삶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듯 하다. 이 혁명이란 정치 이데올로기적 혁명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 애정, 결혼관 등 기성윤리와 도덕을 파괴하는 혁명을 말하고 있다. 가즈코의 이런 도덕혁명론은 황혼 뒤에 찾아오는 아침처럼 그녀는 기존의 도덕을 무너뜨리면서 새로운 도덕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다. 가즈코를 마음속 깊은 심연에서 끌어 올리는 것은 <살고 싶다>라는 생명력이며, 또 여자로서 즉 모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가즈코를 소생시키는 것은 모든 것에 선행해서 긍정할 수 있는 확고한 <자기긍정>24)이었다.

22) 太宰 治, 앞의 글, p.225

23) 太宰 治, 앞의 글, pp.262-263

24) 江種滿子, 『斜陽』의 女性-かず子を中心に-, 『解釈と鑑賞』46卷10号, 1981.10, p.98

이 외에도 「女神」(1947)에서는 현재 남성이 점점 쇠약해져서 앞으로는 여성 시대가 올 것이라 믿고, 자기 아내를 신으로 숭배하는 우스꽝스러운 남편을 등장시키면서 여성의 강인한 생명력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러한 작품들은 전후의 곤란한 시대를 살면서 느끼는 감정을 다자이의 내부의 마음과도 같은 여성들을 현실로 불러들이는 형태로 이 현실을 극복해 가면서 왕성한 생명력을 가진 여성상을 투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鳥居邦朗가 <다자이는 여성의 생명력에 대하여 일종의 신앙과 같은 믿음이 있었던 것 같다><sup>25)</sup>고 논한 것처럼, 다자이는 여성의 갖는 불가사이한 생명력과 강인함을 동경하였으며, 이러한 여성들에게 가탁한 전후 다자이의 희망을 또한 충분히 읽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여성의 강인함은 한편으로는 다자이의 눈에 영원한 타자로서의 여성으로 비추어져서 공포에 떨게 만들기도 하였다. 「春の枯葉」(1946)에서 초등학교 교사 노나카(野中)는 성실 근면하고 겸약가인 아내 세쓰코(節子)에게,

당신들은 정말 강하군. ...젖어, 젖어. 나는 젖다구. 당신들의 그런 강함은 도대체 어디서 온 거지? (중략) 도대체 뭐지. 당신들의 갖는 그 강함의 본질은. 봉건이란 말은 우습고. 아무래도 그런 역사적인 것은 아닌 것 같아. 유사이전부터 당신들에게는 그런 강인함이 있었지. 또 앞으로 이 지구상에 인류가 존재하는 한, 아니 동물의 존속하는 한, 당신들은 영원히 강할게야. (중략) 전인류를 대표하여 말하지만, 당신들은 악마다!

お前は強いなあ...負けた、負けた。僕は負けたよ。お前たちのこんな強さは、いったい、何から来ているのだらうなあ。(中略)いったい、なんだい? お前たちのその強さの本質は、さ。封建、といてみただけはかげている。どだいそんな、歴史的なものじゃあ無えような気がする。有史以前から、お前たちには、そんな強さがあつたんだ。そしてまた、これから、この地球に人類の存在する限り、いや、動物の存続する限り、お前たちは、永久に強いんだ。(中略) 全人類を代表してお前に言う。お前は、悪魔だ!<sup>26)</sup>

25) 鳥居邦朗, 「斜陽」, 『作品論太宰治』, 双文社, 1974

26) 太宰治, 「春の枯葉」, 『太宰治全集』, 筑摩書房, 1981, p.429-430

힐책하면서 결국 술에 만취되어 노상에서 죽고 만다.

노나카는 세상의 눈으로 보면 무능한 남자이며 약한 성격의 소유자지만 죄를 자각하는 까닭에 타인에 대한 애정이 깊은 사람이고, 세쓰코는 소위 말하는 현모양처로서 성실하며 잘못 하나 저지르지 않지만, 그러기에 자기중심적이고 죄의 자각이 없는 박정한 인간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여기서 아내와 남편은 이항대립의 구조를 띤다. 가정을 지키기 위한 전형적인 현모양처지만 이웃의 사랑, 혁명의 실천을 위하여 번민하는 무뢰의 남편에게 있어서 아내의 생활의 강인함은 곧 불가사이한 공포의 대상이고, 자신의 삶의 대극에 서서 자신을 비판하는 존재였다. 후기 다자이의 분신과 같은 이러한 남편에게 있어서 아내는 기성윤리와 가정의 예고이즘의 상징이고, 부서야 할 벽과의 조우를 의미했다. 이 연장선상의 작품이 곧 「父」, 「桜桃」의 처의 모습으로 이어져 하나의 수맥을 형성하고 있다.



#### 4) 기타 여성상

1942년 여성독백체형식의 소설 9편을<sup>27)</sup> 수록한 『女性』이라는 창작집이 발간되었듯이 중기에는 여성독백체 작품이 눈에 띄는데, 그 특유의 여성의 언어를 사용하여 여성 내측에서 여성 고유의 신체감각(생리적, 감각적 특징) 및 생활실감을 섬세하게 고백하는 스타일로 당시의 다자이가 품고 있던 여성관의 일단을 보여준다.

피부병에 걸린 여성의 내면의 미묘한 심리를 절묘하게 그린 「皮膚と心」(1939)에는,

여자에게는 하루하루가 전부인걸요. 남자와 달라요. 사후도 생각하지 않고, 사색도

27) 「燈籠」(1937), 「女生徒」(1939), 「葉櫻と魔笛」(同), 「きりぎりす」(同), 「誰も知らぬ」(同), 「皮膚と心」(同), 「恥じ」(1941), 「十二月八日」(1942), 「待つ」(1942)

없이, 순간순간의 아름다움의 완성만을 바라고 있어요. 생활을, 생활의 감촉을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女には、一日一日が全部ですもの。男とちがふ。死後も考へない、思索も無い、一刻一刻の、美しさの完成だけを願って居ります。生活を、生活の感觸を、溺愛いたします。28)

<내일은 어떻게 되어도 좋다> <여자에게는 하루하루가 전부이다. 남자와는 달라요. 사후도, 사색도 하지 않고 순간 순간의 아름다움의 완성만을 바라며, 생활의 감촉을 탐닉한다>는 <동물적이며> <지각이나 감촉>은 아주 예민하지만, <예지와는 관계없다>고 하는 여성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또 여성독백체의 걸작이라 평가되는 「女生徒」(1939)에서도 밥을 그릇에 옮기다가 문득 <아름답고 가볍게 생을 완수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며>, <여자는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데 미소 하나면 충분하다. 무섭다. 불가사이할 정도>라 하면서 여성특유의 감각적인 여성상을 보여준다.

토끼의 눈을 이식 받은 맹인여자가 사냥꾼을 보면 도망가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읽고 주인공은 이것은 여자가 토끼의 눈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스스로가 토끼가 되어 버렸다고 해석하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여성의 변화자재한 성질을 설명하는 「女人訓戒」(1940) 속에서도,

여성에게는 이와 같은 육체도착이 아주 자주 받아들여진다. 동물과의 육체교감을 아무렇지도 않게 긍정하고 있다.

女性には、このような肉体倒錯が非常にしばしば見受けられるやうである。動物との肉体交流を平気で肯定しているのである。29)

괴기하다고나 할까. 여성의 피부감촉의 과민이 범람하여 수합할 수 없는 촉각이 이처럼 두세가지의 사실로부터 분명하게 예증가능하다.

怪奇といふべきである。女性の皮膚感觸の過敏が、氾濫して收拾できぬ觸覚が、このやうな二、

28) 太宰 治, 「皮膚と心」, 『太宰治全集3』, 筑摩書房, 1981, p.86.

29) 太宰 治, 「女人訓戒」, 『太宰治全集3』, 筑摩書房, 1981, p.172

『の事実からでもはっきり例証できるのである。』<sup>30)</sup>

육체적 피부감각의 예민함을 여성의 특유의 성격으로 말한다.

여기서 감각적이고 현실체험의 강하다고 언급하는 여성관은 이 시기의 소설가, 즉 글을 쓴다는 것과 연관된 <관념성>을 남자의 속성으로 보고, 이를 일상의 측면에서 상대화하는 역할을 바로 이러한 여성의 <현실감각><감각>에서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밥을 그릇에 담을 때 <아름답고 가볍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하는 감각(『女生徒』), 혹은 <생활의 감촉을 너무 탐닉>하고, <순간순간의 아름다움의 완성만을 기원>한다(『皮膚と心』) 등 현실에 밀착한 감각성, 현실성을 여성의 속성으로 보고, 이와 대극에 있는 남성의 관념성을 그리는데 있다고 생각된다. 소설가인 남성에게 여성은 이해를 넘은 타자로서 의식적으로 그려진다. 그러나 <쓰는 것>과 <생활의 감촉>이란 이항대립은 결국 파종을 맞이하여, 후기에 들어서면 생활인 감각적인 여성의 모습과 소설가인 남성은 가정을 지키려는 자와 그를 넘어서는 모습으로 형상화되어 간다.

---

30) 太宰 治, 앞의 글, p.173

### Ⅲ. 「ヴィヨンの妻」에 나타난 여성상

다자이는 1937년경부터 여성독백체 형식으로 소설을 쓰기 시작하여 많은 작품을 남겼다.<sup>31)</sup> 여성 특유의 언어로 <타자>안에 <나>를 가탁하는 여성독백체란 형식속에 자신의 실존감각을 표현하는데 상응한 스타일을 발견하였다. 즉 여성 속에 내재하는 감성적 측면, 직감에 의존하는 사고발상, 현실을 수용하는 여성의 자세 등에서 새로운 <여성>의 주제와 형식을 발견하여 자신의 문학의 한 방향으로 삼아 작품을 써내려 갔다.

「ヴィヨンの妻」는 이러한 여성독백체로 쓰여진 후기단편으로 1947년 3월호 「展望」에 발표, 같은 해 8월 창작집 『ヴィヨンの妻』(筑摩書房)에 수록되어, 발표 당시부터 많은 격찬과 각광을 받은 작품이다.

까닭 모르는 불안과 공포에 떨면서 거리를 방황하는 술주정뱅이 남편인 시인 오타니(大谷)의 모습과는 달리 모든 것을 가볍게 처리해 가는 아내의 입을 통하여 서술되는 구성을 취하고 있다. 남편은 華族출신의 술주정뱅이 시인으로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한 무뢰한이다. 그러나 <나>는 입적도 되어 있지 않아 내연의 처 같은 존재이지만 발육불량의 아이를 키우면서 남편의 지인들이 주는 몇 푼의 돈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하면서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릴 뿐이다. 어느 연말의 심야에 황급하게 귀가한 남편의 뒤를 쫓아서 남편의 단골술집 주인부부가 나타나, 남편이 오천엔을 훔쳐서 달아났다고 말한다. 돈은 다음날 남편의 애인이 되돌려 주었지만, 그 동안 남편이 마신 술 빛 때문에 나는 그 술집에서 일하여 갚기로 하였다. 이틀에 한번 꼴로 남편도 가게에 나타나고, 때로는 남편과 같이 심야에 귀가할 수도 있어 나름대로 행복을 느

31) 「灯籠」(1937), 「誰も知らぬ」(1939), 「女生徒」(1939), 「皮膚と心」(1939), 「待つ」(1942), 「ヴィヨンの妻」(1947), 「おさん」(1947), 「斜陽」(1947) 등

졌다. 그러나 열흘 남짓 가게에서 일하면서 가게에 오는 손님만 아니라 거리를 걷고 있는 사람 모두가 뒤에 어두운 죄를 숨기고 있으며, 자신에게 어두운 구석이 하나도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러던 어느 비오는 날 밤, 선의로 하룻밤을 재워 준 남편의 팬임을 자칭하는 젊은 손님에게 능욕을 당하게 된다. 다음날 아침 나는 걸으로는 태연히 가게에 출근하고 비인간이란 세상사람들의 평에 고민하는 남편에게 <비인간이라도 괜찮잖아요? 우리들은 살아가기만 하면 그걸로 충분하잖아요>라고 대답한다.

본 작품은 일찍부터 전후 다자이를 대표하는 걸작으로 높이 평가되었다. 시인 오타니에게 다자이의 실생활을 그대로 투영한 전형적인 사소설이란 입장에 선 다음의 臼井吉見의 논문 작품 평가의 원형이라 할 수 있다.<sup>32)</sup>

쉽게 상처받는 심성을 지닌 탓에 까닭 모르는 불안과 공포에 떨면서 거리를 방황하는 술주정뱅이 시인의 모습과는 달리, 전혀 상처받지 않고 모든 것을 가볍게 처리해가는 아내의 입을 통하여 서술되는 구상이지만, 일종의 차가운 전율의 미를 창조하고 있다. 다자이의 윤리적 항의와 기원이 강하게 교향하고 있어 작품 전체에 긴장된 리듬이 흐른다.<sup>33)</sup>

그러나 이러한 평가에 대하여 奥野健男은 「冬の花火」, 「春の枯葉」와 더불어 동 작품을 예로 들면서 <얼마나 우리들에게 친근감과 공감을 주었는가>라고 절찬한 후에,

전후의 이상한 분위기와는 아주 동떨어진 오늘날 읽으면 발표 당시와 같은 감명은 없다. 소위 말하는 미풍양속의 파괴도 오늘날에서는 일상다반사처럼 되어 버렸기 때문인지도 모른다.<sup>34)</sup>

32) 그 외 伊藤整 (『斜陽』と『処女懐胎』, 『人間』 1948), 平野謙 (『解説』, 『現代日本文学全集49』), 菊田義孝 (『太宰治と罪の問題』, 修道社 1961) 등 다수.

33) 臼井吉見, 「太宰治論」, 『現代日本文学全集49』, 筑摩書房, 1954, p.409

34) 奥野健男, 「太宰文学の位置とその周辺」, 『太宰治論』, 春秋社, 1966

고 전후의 특별한 분위기에서 읽었던 당시의 감명은 이미 없다고 하였고, 이를 이어받아 三好行雄는,

전후라고 하는 그 이상한 한 시기에 많은 청춘들을 끝없는 열광과 도취로 이끌었던 다자이 신화의 광명 속에서만 오로지 존재 가능한 작품이다. (중략) 작품의 세계를 외부로부터 비춰주는 광선을 상실하여 다소 싸늘한 시선만이 남아 있다.<sup>35)</sup>

작품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작품의 주제에 관한 논도 많지만, 논의 기축을 시인 오타니와 아내 샷창 두 사람 중 어느 쪽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주제가 달라질 수 있어, 그 만큼 「ヴィヨンの妻」 작품의 난해함을 말해준다.

작품의 주제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河盛好藏宛書翰)<sup>36)</sup>는 누가복음 7장47절을 주제의 변주로 보는 해석은 아내 쪽에 작품의 주제를 보는 입장에서의 발상이다.

한편 「春の枯葉」, 「父」, 「桜桃」 등의 관련을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남편 오타니에게서 주제를 찾고 있다. 즉 여성이 갖는 위협적이고 매력적인 강인함에 대한 다자이의 공포, 혐오를 그린 작품이란 발상이다.

「ヴィヨンの妻」의 초기 작품론의 주제는 주로 남편 오타니에게 구하는 입장에 서서 논해져 왔지만, 근래에는 아내 쪽으로 이행되고 있다. 즉, 남편의 구제자를 아내에게서 찾는 東郷克美<sup>37)</sup>의 논, 허무를 끌어안고서 비로서 부드러움을 획득하는 인간의 심상을 그린 작품이라는 松原新<sup>38)</sup>의 논 등이 연속하여

35) 三好行雄, 『群像日本の作家17 太宰治』, 小学館, 1991

36) 「冬の花火」(1946)의 테마에 대하여 다자이는 <이 드라마의 사상은 루카전-누가복음- 7장47 절의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입니다. 자신에 대한 죄의식이 적은 사람은 박정하다, 죄가 깊은 자는 애정도 또한 깊다는 것이 이 희곡의 테마로, 그러기 때문에 아사는 그와 같은 과거를 지니지 않으면 안됩니다. 한번 잘못을 범한 여자는 부드럽다고 나는 확신합니다>란 自注를 달았다 (1946年8月22日付 河盛好藏宛書翰, 『太宰治全集11』, 筑摩書房, 1981, p.330)

37) 東郷克美, 「ヴィヨンの妻-神なき誠實の行方」, 『國文學』, 1974.2

제출되고 있다.<sup>38)</sup>

「ヴィヨンの妻」는 <가정>이란 문제를 중심에 두어, 이를 지키려는 아내와 이를 초월하려는 <가정 파괴자>로서의 남편 오타니의 고통과 속죄를 그리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또 <남자에게는 불행만이 있어. 언제나 공포와 싸우고 있을 뿐이오> <이상한 무서운 신이 존재해서 내가 죽은 것을 만류하고 있어> <죽고 싶어 미치겠어. 태어났을 때부터 죽는 것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오타니의 말 속에는 다자이의 전후 생각이 중첩되어 있고, 무뢰한으로서 다자이의 하강적 삶이 투영되어 있어서 전후 지식인으로서의 오타니의 고뇌, 즉 전후 다자이의 고뇌를 주제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러나 「ヴィヨンの妻」에서 남편의 오천엔 절취사건을 계기로 변모를 달성하는 것은 다름 아닌 아내였다. 하루하루를 남의 도움으로 아무런 대책 없이 살아가면서 남편의 귀가만을 기다리는 아내가 남편의 절도사건을 계기로 부채를 갚기 위하여 집을 나와서 술집에서 일하게 되면서 변모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인간의 근원적인 죄의식을 어렴풋이 깨닫게 되고, 결국은 자신에게 덮친 불행한 사건을 계기로 모든 것을 체념하여 세속적인 윤리도덕을 뛰어 넘어 설 수 있는 새로운 생을 살게된다. 이러한 아내의 변모야말로 다음에 쓰여진 「おさん」의 오산의 자유, 「斜陽」의 가즈코의 도덕혁명으로 연결될 수 있다. 전후 다자이의 여성의 생명력과 여성만이 갖는 특수한 생의 감각에 대한 동경과 희망의 메세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고는 작품의 중심 축을 아내에 두고, 현실대응 자세·죄의식·신과 윤리의 문제에 있어서의 오타니와 아내의 상이점을 짚어보면서 아내의 변모과정을 중심으로 작품 속에 나타난 <여성상>을 고찰하기로 한다.

38) 松原新一, 『戦後日本文学史・年表』, 講談社, 1978

그 외, 饗庭孝男은 『太宰治論』에서 갈데 까지 간 관계에 처한 부부가 살아가기만 한다면 좋다는 확인 안에서 <타자>를 응시하는 시선에 중점을 두고 처의 입장에서 논하기 시작했으며, 鳥居邦朗은 <무엇에도 구애받지 않고 살아갈려는 자세를 볼 수 있다>고 논하고 있다. (鳥居邦朗, 「人間失格」論から太宰治へ, 『解釈と鑑賞』46卷10号, 至文堂, 1981.10, p.37)

## 1) 남편像

「ヴイヨンの妻」라는 소설의 제목은 백년전쟁 후의 혼란기 속에서 절도와 살인으로 이름이 높은 프랑스 시인 프랑수아 비용을 무뢰詩人 오타니에게 가탁한데서 연유한다.

프랑수아 비용<sup>39)</sup>은 타락한 신부 필리프 세르무아즈와 여자문제로 싸우다가 들로 찢려 죽게 한 죄로 고향 파리에서 추방당했다. 그리고 같은 해 크리스마스 전야 나바르교회에 침입하여 교회 안의 대단을 파괴하고 돈 <오백에큐>를 훔쳐 달아나서 각지를 방랑하다가 다시 절도, 살인 사건으로 감옥에 투옥되었다. 나이 30세에 감옥에서 풀려나 파리로 귀환하는 무뢰의 인생을 살았던 시인이다. 이 시기에 쓴 시가 바로 『유언시집』으로 그 동안에 겪은 가난과 고생과 방랑과 감옥살이로 심신이 모두 병든 상태에서 죽음의 예감으로 쓴 시집이다.

프랑수아 비용이란 무뢰한 시인의 면모는 「ヴイヨンの妻」에서 남편인 오타니 안에 생생하게 살아있어, 두 시인의 이미지가 중첩되어 있다.<sup>40)</sup> 그러나 본 작품에서는 오타니의 무뢰한의 모습은 아내의 눈을 통하여 보여지고 이야기되는 구조를 갖는다.

39) Francois Villon (1431-1463) : 중세 프랑스 시인으로 근대시의 선구적 존재이다. 편모슬하에서 가난하게 자라지만 후에 파리의 성 베네딕트 교파의 신부 기욤 드 비용에게 양육되어, <비용>이란 이름도 이 신부의 이름을 딴 것이었다. 파리대학에서 수학하여 높은 학식의 소유자이면서도 살인, 강도 등을 범하고, 도주, 방랑, 투옥의 생애를 보냈다. 살상사건에 연루되어 교수형 선고를 받지만, 1463년 파리에서 십년간 추방형을 받고, 이후 소식불명이 된다. 시집 『유언서』와 『잡시』의 곳곳에 비난, 한탄, 조소가 작열하고 무뢰에 넘치는 청춘의 괴로운 자조, 회한, 죽음에 직면해서는 엄숙한 체념과 기원이 깊이 배어있다. 그의 시에는 자신의 생의 후회를 소망과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한 분노와 조소, 강렬하게 토로하고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의 공포와 더불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여 신의 자비를 빌었다. 자신을 투사함으로써 인간의 모든 것, 약점, 죄악, 사랑, 즐거움, 소망, 믿음 등을 감동적으로 시에 나타냈다. (송면역, 『프랑수아 비용』, 동문선, 1995, p.100)

40) 훔친 5000, 500이란 돈, 칼을 휘두르는 무뢰한 행동, 남편 오타니가 「프랑수아 비용」이란 눈물을 쓴 나이 역시 30세로 되어 있는 등 미세한 부분에서도 흡사하다.

남편은 거의 집에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아이 걱정이나 하고 있는지, 애한테 열이 있다고 말해도, 아 그래, 그럼 의사에게 데려가 봐요, 라고 대답하고 바쁜 듯이 황하니 옷을 걸치고 어디론가 나가 버립니다.

夫は殆ど家に落ちついてゐる事は無く子供の事など何と想っているのやら坊やが熱を出しましてと私が言つてもあそお医者に連れて行つたらいいでしょうと言つていそがしげに二重廻しを羽織つてどこかへ出掛けてしまいます。41)

시인인 남편은 처자식은 전혀 돌보지 않고, 술과 담배, 여자 속에 빠져서 방탕한 행동을 자행하고 있으면서도 <예술>을 위해 당연하다고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아이가 아픈데도 모른 척 밖에 나가버리는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무뢰한이다. 그래서 세인에게는 <에피큐리안 가짜귀족>이며 <비인간>이란 평을 얻고 있다.

오타니는 단골 술집의 주인에게 백엔 수표를 단 한번 쥐어주고 나서 몇 년에 걸쳐 무전음식하며 심지어는 주인 부부가 보는 앞에서 태연하게 오천엔을 훔치기까지 한다. 이런 무뢰한 행동을 하는 인물은 「父」에서

아버지는 술과 담배와 맛있는 반찬 때문에 언제나 돈에 궁해, 여기저기 출판사로부터 돈을 빌려 쓰게 되었다. 이런 꼴이니 집안은 빈곤, 어머니의 지갑에는 기껏해야 백엔 지폐 서너장 뿐이라는 것이 거짓 없는 실정인 것이다.

父は酒と煙草とおいしい副食物のために、いつもお金に窮して、それこそ、あちこち、あちこちの出版社から、ひどい借金をしてしまつて、いきほひ家庭は貧寒、母の財布には、せいぜい百円紙幣三四枚、といふのが、全くいつはりの無い実状なのである。42)

가정을 돌보기는커녕 가정을 일부러 버리는 듯한 행동을 저지르는 무뢰한의 소설가 아버지에게서도 볼 수 있고,

하루종일 집에 있지도 않고, 뭔가 생각하는지 담배를 피우면서 뒷마루에 멍하니 서

41) 太宰 治, 「ヴイヨンの妻」, 『太宰治全集9』, 筑摩書房, 1981, p.16

42) 太宰 治, 「父」, 『太宰治全集9』, 筑摩書房, 1981, pp.385-386

서 먼 지평선 쪽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는 남편의 모습을 보고, 내가 아, 또 시작했구나 하고 노심초사하고 있으면, 역시 심각한 듯 깊은 한숨을 쉬고, 피우던 담배를 마당에 확 던지고 책상 서랍에서 지갑을 집어 안주머니에 넣고, 그리곤 혼 빠진 사람처럼 발소리도 없이, 살그머니 현관을 나가선 그 밤은 대개 돌아오지 않습니다. 一日中うちにいらっしゃるといふわけでもなく、何か考へ、縁側にのっそり立って、煙草を吸みながら、遠い地平線のはうをいつまでも見てゐらして、ああ、またはじまった、と私がはらはらしてゐますと、はたして、思ひあまったやうな深い溜息をついて吸いかけの煙草を庭にぽんと捨て、机の引出しから財布を取って懐にいれ、さして、あの、たまひの抜けたひとみみたいな、足音の無い歩き方で、そっと玄関から出て行って、その晩はたいていお帰りになりません。43)

「おさん」의 저널리스트인 남편 역시 가정을 돌보지 않고 전후의 고민을 겪어  
아 괴로워하는 지식인으로 표현되고 있으며,

나는 사람과 접할 때에도 아무리 마음이 괴롭거나 몸이 지쳐도 거의 필사적으로 즐겁게 분위기를 뛰우려고 애쓴다. 그리고 손님과 헤어진 후 나는 피로에 지쳐서 돈, 도덕, 자살에 관한 일만 생각한다. (중략) 아이가 셋. 아버지는 가사에는 전혀 무능하다. 이불조차 개지 않는다. 그리곤 단지 한심한 농담만 한다. 배급이며 등록 같은 그런 일은 전혀 모른다. 마치 하숙생 같은 형태. 내객. 향응. 도시락을 싸들고 작업실에 가면 그뿐으로 일주일이나 귀가하지 않는다. 일, 일, 하고 언제나 떠들어대지만 기껏해야 하루에 2, 3장정도 쓸 뿐. 나중은, 술. 너무 마시면 몸이 심하게 여위어서 자리에 눕는다. 게다가 젊은 여자 친구 등도 여기 저기 있는 눈치.

私は人に接する時でも、心がどんなにつらくても、からだはどんなに苦しくても、ほとんど必死で、楽しい雰囲気を作る事に努力する。さして、客とわかれた後、私は疲労によるめき、お金の事、道德の事、自殺の事を考へる。(中略)子供が三人。父は家事には全然、無能である。蒲団さへ自分で上げない。さして、ただもう馬鹿げた冗談ばかり言ってる。配給だの、登録だの、そんな事は何も知らない。全然、宿屋住ひでもしてゐるやうな形。来客。饗応。仕事部屋にお弁当を持って出かけて、それきり一週間もご帰宅にならない事もある仕事、仕事、といて騒いでいるけれども、一日二、三枚くらいしかお出来にならないやうである。あとは、酒。飲みすぎると、げっそり痩せてしまつて寝込む。そのうへ、あちこちに若い女友達などもある様子だ。44)

「桜桃」에서는 가정을 저버린 무뢰한 소설가의 모습으로 표현되는 등, 후기 단

43) 太宰 治, 「おさん」, 『太宰治全集9』, 筑摩書房, 1981, p.271

44) 太宰 治, 「桜桃」, 『太宰治全集9』, 筑摩書房, 1981, pp.376-377

편 속에 보이는 전형적인 남편들의 모습이다. 이러한 남편들은 예술을 위하여 실생활을 던져버리는 예술과 생활의 상극 속에 고뇌하는 다자이의 하강의식의 투영이라고도 볼 수 있는 인물들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일련의 예술가인 남편들의 무뢰한 행동은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일까.

한달 가까이 집을 비우고 어찌다 돌아올 때도 항상 만취가 되어 새랴게 질린 얼굴로 처의 얼굴을 보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는 오타니는,

아아, 안되겠어. 무서워, 무섭다구, 나는. 무서워, 제발 살려줘.

ああ、いかん。こはいんだ。こはいんだよ、僕は。こはい！ たすけてくれ！ 45)

라고 소리지르면서 아내의 가슴속에 안겨서 벌벌 공포에 떨다가 다음날 아침이 되면 마치 혼이 빠진 사람처럼 멍하게 있다가 다시 황하니 사라져 버린다. 그러나 이러한 오타니의 공포와 불안은 아내인 <나>에겐 알 수 없으며 또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

「여자에게는 행복도 불행도 없지.」

「그래요? 그렇고 보면,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럼, 남자는 어때요?」

「남자에게는 불행만이 있을 뿐이지. 언제나 공포와 싸우고 있어.」

「女には、幸福も不幸も無いものです.」

「さうなの? さう言はれると、そんな気もして来るけど、それじゃ、男のひとは、どうなの?」

「男には、不幸だけがあるんです。いつも恐怖と、戦ってばかりいるのです」 46)

오타니는 아내에게, 그저 하루하루의 순간의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생활만 바라는 여자에게는 행복도 불행도 없지만 남자에게는 오직 불행만이 있으며 또 언제나 공포와 싸우고 있다고 말한다. 결미에서 오타니는 <신을 두려워하는 에피큐리언>라고 자기규정하듯 그의 공포는 결국 신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45) 太宰 治, 「ヴィヨンの妻」, 『太宰治全集9』, 筑摩書房, 1981, p.31

46) 太宰 治, 앞의 글, p.49

고 할 수 있다.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운명으로서의 공포와 그 운명을 부여하는 <신>의 존재를 두려워하고 순간의 행복조차 누릴 수 없는 비관적 무퇴한 이지만 아내의 눈에는 남편의 존재론적 번민을 알 수가 없다.

「나는 말야, 죽고 싶어 미치겠어. 태어날 때부터, 죽음만을 생각하고 있어. 모두를 위해서라도 죽는 편이 나아. 이것만은 확실해. 그래도, 좀처럼 죽을 수가 없어. 이상하고도 무서운 신 같은 존재가 나의 죽음을 만류하고 있어. (중략) 무서운 것은 이 세상의 어딘가에 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이야. 있겠지?」

「僕はね、死にたくて、仕様が無いんです。生れた時から、死ぬ事ばかり考へてゐたんだ。皆のためにも、死んだほうがいいんです。それはもう、たしかなんだ。それでゐて、なかなか死ねない。へんな、こわい神様みたいなものが、僕の死ぬのを引きとめるのです。」(中略)おそろしいのはね、この世の中の、どこかに神がある、といふ事なんです。ゐるんでせうね?」 47)

이처럼 남편 오타니는 죽음의 그림자를 항상 품고 다니며 그 생의 존재를 근저에서 묻고 있다. 오타니의 신에 대한 절박한 대항은 무퇴의 시인이라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물음과 동시에 그 모순을 자각하고, 그 위에 생의 근원은 무엇인가를 회구하는 것처럼 보인다. 자신과 같은 존재는 차라리 모두를 위해서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오타니는 <이상한 무서운 신 같은 존재가> <자신의 죽음을 만류한다>고 생각하고, <이 세상에 어딘가에 존재하는 신>이 두려울 뿐이다. 그를 두려움에 떨게 하는 신이란,

그를 벌하는 준엄한 「윤리적 정신」도 아니며, 그렇다고 모든 것을 융화하는 「구제의 신」도 아니다. 그러나 이 보이지 않는 「신」은 심연의 바닥처럼 불가사이하게 그의 생을 두고두고 지배한다.<sup>48)</sup>

佐藤泰正가 논하듯 다자이의 내부에 깊이 새겨진 죄의식의 심화와 더불어 그의 생을 근저에서 뒤흔들어 놓는 존재였다. 신의 문제는 전후 다자이 문학에

47) 太宰 治, 앞의 글, p.42

48) 佐藤泰正, 「太宰 治少論-<神>という名辭をめぐって-」, 『解釈と鑑賞』, p.250

있어서 성서와 죄의식의 문제와 더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다자이는 <성서 한 권에 의하여 일본의 문학사는 예전에는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선명하게 들로 나눌 수 있다>49), <나의 고뇌의 대부분은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難題에 걸려있다>50)라고 스스로 말할 정도로 성서에 대한 경도가 엇보인다. 그러나 다자이의 성서수용은

1937,38년경의 다자이의 성서수용은 확실히 율법적이었던 것은 사실이다. 순교자의 심리를 인간 그리스도에 찾아서 거기에 <세상>으로부터 소외된 <실격자>가 부상하는 구도는 무시할 수 없다. 전후 1946,47년은 <율법적 수용>이 보다 강렬한 빛을 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자이는 인간의 심저에 웅크리고 있는 에고이즘을 씻어내려고 했는지도 모른다.51)

율법적인 자세로 임하여 결국 복음으로 수용하지 못하고 세상을 등졌다. 즉 「人間失格」에서

나는 신에게조차 두려워했습니다. 신의 사랑은 믿을 수 없고, 단지 신의 죄만을 믿고 있었습니  
다. 신앙. 그것은 단지 신의 대답을 듣기 위해서, 고개를 떨구고 심판대를 향해 오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지옥은 믿을 수 있어도 천국의 존재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自分は神にさへおびえてゐました。神の愛は信ぜられず、神の罪だけを信じてゐるのでした。信仰。それは、ただ神の答を受けるために、うなだれて審判の台に向ふ事のやうな気がしてゐうのでした。地獄は信ぜられても、天国の存在は、どうしても信ぜられなかつたのです。52)

와 같은 주인공 요조의 절규에서도, 그리고

49) 聖書一卷によりて、日本の文学史は、かつてなき程の鮮明さをもて、はっきりと二分されてゐる(太宰治, 「HUMAN LOST」, 『太宰治全集2』, 筑摩書房, 1981, p.71)

50) 私の苦悩の殆ど全部は、あのイエスといふ人の、「己れを愛するがごとく、汝の隣人を愛せ」といふ難題一つにかかつてゐる(太宰治, 「如是我聞」, 『太宰治全集10』, 筑摩書房, 1981, p.362)

51) 千葉正昭, 「聖書」, 『太宰治作家論辭典』, p.29

52) 太宰治, 「人間失格」, 『太宰治全集9』, 筑摩書房, 1981, p.469

작품을 발표한다는 것은 창피를 당하는 일입니다. 신에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고백에 의해 신한테 용서받는 것이 아니고 신의 벌을 받는 것입니다.

作品を発表するといふ事は、恥を搔く事であり、神に告白する事であり、さして、もっと重大なことは、その告白に依って神からゆるされるのでは無く、神の罰を受ける事である。53)

「風の便り」에서도 역력히 보이는 것처럼 다자이에게 있어서 神은 율법적인 신이었지 사랑과 구제의 신이 아니었다. 여기서 신을 율법적으로 밖에 파악할 수 없는 그의 한계를 다시 확인하지 않을 수 없다.

프랑수아 비용의 「수형 당하는 자들의 발라드」54) 를 보면 죽음 앞에서 몸의 진동과 전신경의 전율되는 듯한 엄숙함과 신에 대한 은총과 바램을 노래한다. 여기서 신은 회개에 의해 용서를 내리는 은총의 신이다. 그런데 비해 오타니의 <무서운 신>이란 <신>의 손에 의한 단재에 의해서만이 자기구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단재, 즉 죽음조차 소외하는 신>55)은 절대로 나타나지 않고 자신의 구원에 응답이 없으며 그래서 오타니는 그러한 신에게 항의와 공포를 동시에 느끼는 것이다. 이런 오타니에게 비용과 같은 용서와 은총의 신은 나타나지 않고 오로지 죽음과 공포로서의 존재로 나타날 뿐이다.

그러나 그의 두려움은 단지 신에 대한 것만은 아니었다. 남편이 죽고 싶어

53) 太宰 治, 「風の便り」, 『太宰治全集4』, 筑摩書房, 1981, p.340

54) 우리 다음에도 살아남을 인간 형제들이여  
우리를 향해 돌 같은 마음 가지지 마시게, 왜 나 하니,  
불쌍한 우리 향하여 동정심 가지시면  
하느님께서 그대들에게도 큰 자비 가지 시리. (중략)  
신이시여,

모든 것 지배하시고 명령하시는 분이시여,  
지옥이 우리를 사로잡지 않도록 보호하소서  
지옥에 우리가 지분할 것 없게 하소서.  
인간들이여,

우스꽝스럽게 여길일 여기 조금도 없으니,  
대신 신께 우리 모두가 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게나! (하략)

(프랑수아비용 (송면 역), 『프랑수아비용』, 동문선, 1995, p.592)

55) 伴 悦, 「『ヴェイヨンの妻』論」, 『解釈と鑑賞』48卷9号, 至文堂, 1983. 6, p.98

도 못 죽는다는 말에 아내가 당신에게는 예술이 있지 않느냐고 반문하자,

「일 따위는 아무 것도 아니야. 걸작도 졸작도 없어. 사람들이 좋다고 평하면 좋은것이고 나쁘다고 평하면 나쁜 거야. 마치 들숨과 날숨에 지나지 않아.」

「仕事なんでもものは、なんでもないんです。傑作も駄作もありやしません。人がいいと言へば、よくなるし、悪いと言へば、悪くなるんです。ちやうど吐くいきと、引くいきみたいなものなんです。」<sup>56)</sup>

라는 세평에 대한 그의 두려움을 알 수 있고

이런 또 내 험담을 쓰고 있군. 에피쿠리언의 가짜귀족이래. 이견 맞지 않아. 신을 두려워 하는 에피쿠리언이라고 하는 편이 나옴데. 샷창, 봐, 여기에 나를 비인간이라고 쓰고 있군. 아니지? 지금에 와서 말하는 건데, 작년 연말 이 가게에서 오천엔을 갖고 나간 것은 당신과 아이에게 그 돈으로 오랜만에 좋은 명절을 보내게 해주고 싶어서였어. 비인간이 아니니까 그런 일도 저지른 건데.

やあ、また僕の悪口を書いてる。エピキュリアンのにせ貴族だってさ。こいつは、当たってゐない。神におびえるエピキュリアン、とでも言ったらよいのに。さっちゃん、ごらん。ここに僕のことを、人非人なんて書いてるますよ。違ふよねえ。僕は今だからいふけれども去年の暮にね、ここから五千円持って出たのは、さっちゃんと坊やにあのお金で久しぶりのいいお正月をさせたかったからです。人非人ではないからあんな事も仕出かすのです。<sup>57)</sup>

<에피쿠리언의 가짜귀족><비인간>이란 세속의 비판에 대한 그의 변명을 늘어놓는다. 즉 오타니는 자신을 벌하는 신의 존재에 대한 공포와 더불어 세상의 불가해한 위화감과 공포를 느끼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다자이에게 있어서 세상이란 개인과 개인의 투쟁이며, 그것도 단지 한 순간의 한판승부의 세계로만 파악할 수 있었다. 그는 타자와 세상에 대한 불가해함과 공포를 문학으로 표현한 <道化>의 작가였다.

<사람들은 서로 비평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일까>하고 항상 세평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우라시마(浦島)에게 있어서 용궁이란

56) 太宰 治, 「ヴィヨンの妻」, 『太宰治全集9』, 筑摩書房, 1981, p.42

57) 太宰 治, 앞의 글, p.47

진정한 고상함이란 성체의 경지지 단순한 체념이 아니라 말일세. 알겠어? 비평 같은 시끄러움은 전혀 없어, 무한하게 허락되어 있어. 그리고 단지 미소만 있을 뿐이지. 眞の上品といふのは聖諦の境地さ、ただのあきらめぢゃ無いぜ、わかるかね、批評なんてうるさいものは無いんだ。無限に許されてゐるんだ、さうしてただ微笑があるだけだ(58)

속인들의 비평에 의하여 움직이는 세상이 아니라 모든 것을 체념한 성체의 경지를 체현한 곳, 이상향이였다. 이처럼 다자이는 세평에 대한 공포와 탈출을 문학적으로 전개해 나갔다. 이런 경향은 오타니에게도 투영되어 그의 무리한 행동의 원인은 신에 대한 공포와 불안, 그리고 세평에 대한 공포에 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그것은 세속에서 자신이 머물러야만 하는 <가정>으로 이어진다. 남편에게서 <죽음을 만류하는><무서운 신 같은> 존재란 결코 형이상적인 절대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어디까지나 처자와의 일상적 관계 그 자체, 조화되기 어렵고 또 끊기도 어려운 <가정>이 갖는 의미에 대한 예지(59)였던 것처럼,

난로가의 행복. 어째서 나에게서 이게 불가능한 것일까.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기분이 든다. 난로가가 무서워서 참을 수가 없다.

炬辺の幸福。どうして私には、それが出来ないのだらう。とても、みたらない気がするのである。炬辺が、こはくてならぬのである。(60)

가정의 행복. 누가 그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나는 우스개 소리를 하는 게 아니다. 가정의 행복은 어쩌면 인생의 최고의 목표이고, 광명일 것이다. 최후의 승리 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나는 얼마나 분한 눈물을 흘렸던가.

家庭の幸福。誰がそれを望まぬ人があらうか。私は、ふざけて言っているのでは無い。家庭の幸福は、或ひは人生の最高の目標であり、栄冠であらう。最後の勝利かも知れない。しかし、それを得るために、彼は私を、口惜し泣きに泣かせた。(61)

58) 太宰 治, 「浦島さん」, 『太宰治全集7』, 1981, p.348

59) 安藤 宏, 「『ヴィヨンの妻』試論」, 『解釋と鑑賞』53卷6号, 1988.6, p.107

60) 太宰 治, 「父」, 『太宰治全集9』, 筑摩書房, 1981, p.67

61) 太宰 治, 「家庭の幸福」, 『太宰治全集9』, 筑摩書房, 1981, p.392

전후 다자이는 난로가의 행복을 동경하는 한편, 그 행복은 바로 자신이 혐오하는 <살롱사상>에 이어진다고 생각했다. 여기서 살롱이란 동료들 중 이해, 납득하고 새로운 현상에 눈을 돌리지 않은 채 가정의 행복을 추구하는 大家를 지칭하는 말로 다자이는 이것을 비판하기 시작한다. 다자이의 <난로가의 행복에 대한 공포>는 전후 작품에서 확실히 하나의 수맥을 형성한다.<sup>62)</sup> 이런 흐름을 이어받은 「ヴィヨンの妻」의 오타니도 전후 황폐한 사회 안에서 가정생활을 공포대상으로 생각하여 무뢰사상을 피력하고 아내에게 자신의 공포, 죽음에 대한 구제를 바랬으나 그것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처럼 전후의 가정의 에고이즘을 근본악으로 보는 다자이에게 있어서 가정의 행복은 타인을 희생시키고 이웃사랑의 실천의 저해를 의미하였기에 오타니는 가정에 머무를 수 없어 의도적으로 무뢰하고 방탕한 생활을 스스로 추구하여 하강으로 치달았다. 이웃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가정의 에고이즘을 비판하고 신의 존재를 두려워하는 남편은 결국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한 반역적인 행동, 즉 탈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훔친 돈으로 본래의 의도(처와 자식을 위한)와는 달리 그 돈으로 다시 자신의 방탕한 생활비로 써버린다. 어쩌면 남편은 자신의 생만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타인의 아픔에는 무관심한 비정하고 뻔뻔스러움을 지닌 타자, 가정의 에고이즘에 경멸을 느끼고, 자신이 또한 그렇게 되어간다는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기에 절대자신을 두려워하고 미래에 대한 불행을 예감하는 것이다. 이런 남편의 죄의식은 「姥捨」에서의 <나 혼자만의 행복만으로는 살아 갈 수 없다><sup>63)</sup>라고 하는 것이나, 「虚構の春」에서 <맹세코 말하지만, 나는 나 혼자만을 위하여 행동한 적은 한번도 없었다><sup>64)</sup>와 그 맥락이 같다고 할 수 있다. 자신을 버리고 타인을 생

62) <품위있는 살롱은 인간이 가장 두려워 해야하는 타락이다> (『十五年間』(1946))는 주장도 <내가 만일 살롱적인 품위 있는 가정생활을 획득할 수 있다면...>라는 형태로, 결국은 「가정」의 문제로 수검되어버리게 된다. (安藤 宏, 『ヴィヨンの妻』試論, 『解釈と鑑賞』53卷6号, 至文堂, 1988. 6, p.109)

63) 自分ひとりの幸福だけでは、生きて行けない (太宰 治, 『姥捨』, 『太宰治全集2』, 筑摩書房, 1981, p.107)

각해야 한다는 사고에서 비롯되는 이런 생각들은 자신을 버린다는 것은 곧 자신이 머무는 가정을 버려야만 비로소 살아 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정을 파괴하면서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번민과 고뇌는 스스로의 죄의식을 키웠고 이로 인해 신을 두려워하고 가정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고뇌는 그의 공포와 소외감을 더욱더 가증시키는 원인이 되고 그로 인해 남편은 자기상실로 치닫게 된다.

## 2) 아내像

발육불량의 아이를 껴안고, 하루하루를 남의 도움으로 아무런 대책 없이 살아가면서 남편의 귀가만을 기다리던 아내인 <나>는 남편의 절도사건을 계기로 남편의 부채를 갚기 위하여 술집(樽屋)에서 일하게 되면서 점차 변모하기 시작한다. 그녀는 가게에서 열흘 남짓 일하면서 인간의 근원적인 죄를 어렴풋이 깨닫게 되고, 결국은 자신에게 덮친 불행한 사건을 계기로 모든 것을 체념하여, 세속적인 윤리 도덕을 뛰어 넘어 설 수 있는 새로운 삶을 찾는다.

여기서는 현실대응자세·죄의식·신·윤리라는 문제와 아내의 변모과정을 중심으로 작품에 나타난 <삿창>이란 여성상을 고찰하기로 한다.

먼저 남편의 절도 사건을 눈앞에 두고, 이에 대응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기로 하자. 남편의 뒤를 쫓아 심야에 방문한 술집가게의 부부가 가게의 사활이 걸린 훔쳐간 돈을 돌려달라는 장황한 설명을 들으면서 아내는,

이유 모를 우스꽝스러움이 북받쳐 올라와 나는 그만 소리를 내고 웃어 버렸습니다.  
술집 여주인도 얼굴을 붉히며 조금 웃었습니다. (중략) 웬지 눈물이 나서 남편의 시에 있는 「문명의 끝의 대폭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기분을 말하는 것일까, 하

64) 誓って言ふ。私は、私ひとりのために行動したことはなかった (太宰 治, 「虚構の春」, 『太宰治全集1』, 筑摩書房, 1981, p.382)

고 문득 생각했습니다.

わけのわからぬ可笑しさがこみ上げて来まして、私は声を挙げて笑ってしまいました。おかみさんも、顔を赤くして少し笑ひました。(中略)涙が出て、夫の詩の中にある「文明の果の大笑ひ」といふのはこんな気持の事を言っているのかしらとふと、考へました。65)

상황으로 보아 결코 웃음이 나올 수 없으며 웃어서 끝낼 사건도 아닌데도 아내의 그만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날 정도로 웃고 만다. 상황과는 부합한 이 웃음은 아내의 심리의 전개에 기반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띤다.

사건의 전말을 듣고서 아내는 뒷처리를 책임지겠다고 하여 주인부부를 되돌려 보냈지만, 막상 별 대책도 없는 그녀는 그저 이 밤이 새지 말았으면 하고 아이를 부둥켜안고 뜯눈으로 밤을 지새울 뿐이었다. 다음날 아무런 대책도 없이 마치 악마의 늪에 빠지는 듯한 기분으로 가게로 향하였지만 가게의 여주인의 얼굴을 보자마자 <자기도 모르게> 내일까지 돌려드릴 수 있다고 <술술 거짓말>이 나온다. 가게에서 술 심부름을 하면서도,

단지 웃으면서 손님들의 음란한 농담에 나도 장단을 맞추어서 오히려 더 진한 저질 농담을 주고받기도 하고, 이 손님 저 손님 미끄러지듯 옮겨다니면서 술을 따르고, 그리는 사이에 나의 몸이 아이스크림처럼 녹아 흘러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기적은 역시 이 세상에 때때로 나타나는가 봅니다.

ただ笑って、お客のみだらな冗談にこちらも調子を合せて更にもっと下品な冗談を言ひかへし客から客へ滑り歩いてお酌して廻ってきうしてそのうちに、自分のこのからだをアイスクリームのように溶けて流れてしまへばいい、などと考へるだけでございました。奇蹟はやはり、この世の中にも、ときたま、あらはれるものらしいございます。66)

<자신의 몸이 아이스크림처럼 녹아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뿐이다. 기적처럼 남편의 애인이 돈을 갚아주어서 일이 해결되자 아내는 <만사가 잘 됐다. 웬지 그렇게 믿고 싶어져 즐거워>지는 생의 형태는 목전의 일만 처

65) 太宰 治, 「ヴィヨンの妻」, 『太宰治全集9』, 筑摩書房, 1981, p.30

66) 太宰 治, 앞의 글, p.36

리되면 현실을 체감하여 행복을 순진하게 누릴 수 있는 여성의 감각적이고 즉물적인 부분을 형상화하고 있다.

여성독백체의 문체의 특성에 대하여 原了朗가

「남자의 언어」의 제도·규범·구속에서 해방된 「여자의 언어」만이 현실의 약자는 종속의 입장을 확인시켜가고, 주종도착의 계기로 쾌감을 주고 맛볼 수가 있다.<sup>67)</sup>

고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여성독백체의 문체는 여성의 즉물적이고 비논리성을 부각시키는데 적합하여, 화자인 <나>의 생의 수용태도를 엿 볼 수 있기에 충분하다. 다시 말하자면 현실의 제도나 질서의 관념, 이상과 정면으로 대치하거나 반역하지 않고 거기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혹은 수용하는 자세를 말함이다.

여성은 보통 관념보다는 육체, 윤리보다는 생리, 이성보다는 감성에 의지하는 즉 자연에 순응하는 존재로 파악된다. 철학자 흄((David Hume)은 감각지각에 관한 그의 이론에서 지각을 인상과 관념으로 나눈다. 이 양자의 구별은 그것들이 사유나 의식에 나타나는 강도의 차이에서 결정된다. 극히 강렬하고 생생하게 나타나는 지각과 우리들의 마음에 최초로 나타나는 모든 감각, 정서 등은 인상이다. 관념은 사유나 추리에 있어서 나타나는 인상의 감정 등이 현재 마음에 있는 상태며, 관념은 이미 경험한 인상을 기억 등에 의해서 마음에 모사하는 상태이다. 이런 관념과 인상은 항상 서로 대응한다는 원리 때문에 인상에 가까운 여자와 관념에 가까운 남자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태도에서도 현저한 상이함을 보이는 것이다.<sup>68)</sup> 이런 자세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태도에도 곧바로 작용하여 자기에게 충실하게 살아가는 자세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런 여성적인 특질은 화자인 <나>에게서 여실히 볼 수 있다. 행복의 수용 태도에 있어서도 남편은 불안과 공포, 신의 존재 때문에 찰나의 행복도 향수

67) 原了朗, 「太宰 治における<をんなの言葉>」, 『国文学』32卷1号, 学灯社, 1986.1, p.9

68) 엘리자베스 클레망 외(이정우 역), 『철학사전』, 동녘, 2000, pp.355-356

할 수 없는 무죄한이나. 그러나 아내는 남편의 진 부채 때문에 아무런 미래에 대한 대안 없이 가게에서 일을 하면서도,

그 다음날부터 나의 생활은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달라져, 신바람이 난 듯 즐거운 나날이 되었습니다. 곧장 미장원에 가서 머리손질도 하고 화장품도 장만했습니다. 그리고 옷도 수선하고, 게다가 안주인에게 새 버선도 두 개나 받았지요. 지금까지의 마음 속을 무겁게 짓누르던 생각이 말끔히 씻겨진 듯 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その翌日からの私の生活は、今までとはまるで違って、浮々とした楽しいものになりました。さっそく電髪屋に行って、髪の手入れも致しましたし、お化粧品も取りそろへまして、着物を縫ひ直したり、また、おかみさんから新しい白足袋を二足もいただき、これまでの胸の中の重苦しい思ひが、きれいに拭ひ去られた感じでした。<sup>69)</sup>

매일 매일이 날아갈 듯한 즐거움으로 변하여, 지금까지 가슴 속을 무겁게 짓누르던 생각도 말끔히 씻겨진 듯 한 기분이 든다. 가끔 가게로 찾아오는 남편과의 늦은 귀갓길에서도 아내는 행복을 느낀다. 남편이 남자에게는 불행뿐이고 공포와 싸우고 있다고 해도,

「남자에게는 불행만이 있을 뿐이지. 언제나 공포와 싸우고 있어.」

「난,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언제나 난 이런 생활을 계속하고 싶어요.」

「男には、不幸だけがあるんです。いつも恐怖と、戦ってばかりいるのです」

「わからいわ、私には、でも、いつまでも私、こんな生活をつづけて行きとうございますわ。」<sup>70)</sup>

그저 이런 생활을 계속하고 싶다고 바랄 뿐이다. 「女生徒」, 「皮膚と心」의 여성처럼 순간 순간의 감각에 의지하여 찰나의 행복을 향수하는 감각적이고 즉물적인 여성이며, 남성적 논리의 세계에서 해방되어 과거도 미래도 없이 단지 지금이란 시간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삶과 조용할 수 있는 여성이다.

아내에게 행복이란 이성적인 것이 아닌 감각적인 것이다. 체계적인 가치관

69) 太宰 治, 「ヴィヨンの妻」, 『太宰治全集9』, 筑摩書房, 1981, pp.40-41

70) 太宰 治, 앞의 글, p.49

보다도 눈앞의 감각적 측면에 의한 것이고 육감적, 개인적인 것이다. 이에 비해 오타니가 추구하는 행복이란 자기 한 개인의 감각을 벗어난 체계적인 것이고 이상적인 것이다. 그에게 한 개인의 행복은 있을 수 없다. 여기에 아내와 남편의 행복에 대한 수용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난다.

이렇게 현실에 체념하고 순응하면서 새로운 세계를 획득하려고 한다면, 「おさん」의 아내(おさん)처럼 <도덕 따윈 아무래도 좋아. 단지 잠시만이라도 마음편한 삶을 살고 싶다. 한시간이라도 두시간이라도 즐겁기만 하면 그걸로 충분하다>와 같이 삶에 대한 강한 애착과 가능성을 내포하게 되는 것이다.

가게의 손님만이 아니라, 길을 가는 사람 모두가 무엇인가 반드시 뒤에 어두운 죄를 숨기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었지요. (중략) 자신에게 어두운 구석이 하나도 없이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여겨졌어요. 트럼프놀이처럼 마이너스를 전부 모아서 플러스로 바꾸는 일은 이 세상의 도덕에서는 있을 수 없는 것일까요. 신이 있다면 나와주세요. 나는 정월 말 손님에게 더럽혀졌답니다.  
お店のお客さんばかりでなく、路を歩いてゐる人みなが、何が必ずしろ暗い罪をかくしてゐるように思はれて来ました。(中略)わが身にしろ暗いところが一つも無くて生きて行く事は、不可能だと思ひました。トランプの遊びのやうに、マイナスを全部あつめるとプラスになるといふ事は、この世の道徳には起り得ない事でせうか。神がゐるなら、出て来て下さい!。私は、正月の末に、お店のお客にけがされました。71)

그러나 아내는 열흘 남짓 가게에서 일하면서 가게에 오는 손님만 아니라 길을 가는 사람 모두가 <뒤에 어두운 죄를 숨기고>있으며, <자신에게 어두운 구석이 하나도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즉 생의 불가결한, 존재론적 죄의식에 대한 자각이 움트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한편으로는 남편의 정신적 고뇌를 이해하는 하나의 길을 의미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정신적인 변모는 스스로의 삶에 어두운 그림자를 꺼안게 되는 사건,

71) 太宰 治, 앞의 책, p.43

즉 정월 말 선의로 하룻밤을 재워준 남편의 팬임을 자칭하는 젊은 남자에게 능욕을 당하게 되면서 결정적인 것이 된다.

능욕사건은 여성이 절대적 부드러움과 죄의식<sup>72)</sup>을 공유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요소이라고 생각된다. 아내는 <어두운 구석이 하나도 없이 산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존재론적 죄의식, 즉 인간의 갖고 있는 <죄>나 <어둠>은 생의 불가결한 요소라는 것을 어렵듯이 깨닫고 있었기에 능욕사건을 계기로 그녀는 정신적인 변모를 달성할 수 있게 된다. 그녀는 절실한 체험을 통하여 자신의 생을 비쳐볼 때 살아가는데 획기적인 변모를 일으킨 것이다. 여자의 너무나도 올바른 자기긍정이 「죄」의 자각에 의해서 변화해간다는 테마는 다자이가 확실하게 몽상한 것<sup>73)</sup> 같다.

그녀는 인간에 대한 신뢰가 능욕이란 화살로 되돌오자 <신이 있다면 나와 주세요. 나는 정월 말 손님에게 더럽혀졌습니다>라고 신의 존재에 대한 의문을 던진다. 즉 자신을 별할 신의 존재 같은 것, 따라서 남편을 별하는 무서운 신의 존재는 없다는 소리 없는 절규이며, 또 초월적 존재에 의한 구제의 가능성을 처음부터 기대하지 않고 냉정한 달관으로 일관한다. 그리하여 그녀는 일체의 기대를 버리고, 비인간이란 신문 평을 보고 항변하는 남편에게 <비인간이라도 괜찮잖아요? 우리들은 살아가기만 한다면 그걸로 충분하잖아요> 라고 대답한다. 즉 세속의 윤리도덕을 넘어서 운명에 거스르지 않고 생존에 의의를 두는 새로운 윤리에 봉착을 하게 된 것이다.<sup>74)</sup>

이것은 떨어질 대로 떨어져서 끝이 보이지 않는 「無」에 도달하고 난 뒤의 아내에게는 이미 <죄의식>조차 넘어버린 것일 지도 모른다. 石川まなみ는 다자이 작품 속의 여성은 항상 신에게 용서받는 존재이나 남성은 언제나 신 앞에서 벌해지는 존재라고 논했지만<sup>75)</sup>, 여기서의 아내는 신에게 구원받은 존

72) 注36 참조.

73) 安藤 宏, 「『ヴィヨンの妻』試論」, 『解釈と鑑賞』53卷6号, 至文堂, 1988. 6, p.109

74) 畑佐章子, 「『ヴィヨンの妻』論」, 『解釈と鑑賞』59巻9号, 至文堂, 1994.9, p.47

75) 石川まなみ, 「愛と苦惱のあいだー人間失格をめぐるー」, 『國文學』, 學燈社, 1980, p.30

재라기 보다는 신의 존재와 관련 없이 현실의 체념을 통해 스스로의 가능성을 갖게되고 삶의 의미를 얻었다고 할 수 있다.

그 날도 걸으려는 아무 일 없는 듯 예전처럼 아이를 등에 업고, 가게에 일하러 나왔습니다. 가게에는 남편이 술이 든 컵을 테이블 위에 놓고 혼자서 신문을 읽고 있던군요. 컵에 비취진 오전의 햇살이 참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その日も私は、うはべは、やはり同じ様に、坊やを背負って、お店の勤めに出かけました。中野のお店の土間で、夫が、酒のはひったコップをテーブルの上に置いて、ひとりで新聞を読んでました。コップに午前の光が当って、きれいだと思ひました。76)

아내는 사건 다음날 가게에서 남편이 마시고 있는 술컵에 비친 오전의 햇살이 아름답다고 생각한다. 능욕 당한 다음날 맞는 아침햇살을 아름답게 느낄 수 있는 것은 이 아침햇살을 은총의 신호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아내가 여기에 이르러 자신의 과실(죄의식)을 뛰어 넘어 스스로 결정적인 변모를 달성하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생각된다.

「어젯밤은 오지 않았었어요?」

「왔었지. 쓰바키야 샷창, 당신 얼굴을 못 보면 요새는 잠이 안 와. 10시 조금 지나와 봤는데 일 끝내고 막 돌아갔다고 하더군.」

「그래서요?」

「그냥 여기서 잤어. 비도 엄청 오고 해서 말이지.」

「나도 이제부터 이 가게에 쪽 머무를까 봐요.」

「그것도 좋지.」

「그렇게 해야겠어요. 집을 언제까지나 빌리는 것은 의미가 없으니깐.」

「ゆうべは、おいでにならなかったの?」

「来ました。椿屋のさつちゃんの。を見ないとこのごろ眠れなくなってね、11時すぎにここを覗いてみたら、いましがた帰りましたといふのでね。」

「それで?」

「おっちゃん、ひましたん、ここへ。雨はざんざん降ってるし。」

「あたしも、こんどから、このお店にずっと泊めてもらふ。泊らしようかしら。」

76) 太宰 治, 「ヴィヨンの妻」, 『太宰治全集9』, 筑摩書房, 1981, p.46

「いいでせう、それも」

「さうするわ。あの家いつまでも借りてるのは、意味ないもの。」<sup>77)</sup>

작품의 결말에서 가정이라 부르기에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해왔던 아내는 집을 그대로 빌려 두는 것도 무의미하니 앞으로 가게에서 지내겠다는 선언을 한다. 즉 껍데기뿐인 가정생활과 결별을 결의하게 된다.

「비인간이 아니니까 그런 일도 저지른건데」

나는 별반 기쁘지도 않아,

「비인간이라도 괜찮잖아요? 우린 살아가기만 하면 그걸로 충분하잖아요。」

「人非人でないからあんな事も仕出かすのです。」

私は格別うれしくもなく、

「人非人でもいいじゃないの。私たちは、生きていさえすればいいのよ。」<sup>78)</sup>

그리고 난로가의 행복에 대한 미련을 말하는 남편 앞에서 아내는 여기에 이르러서는 자발적인 삶을 살아가는 선택을 하게 된다. 지금까지 남편의 말에만 답하던 아내는 남편의 말을 직접 유도하고 있다. 아내의 말투는 능욕을 당한 다음날임에도 불구하고 어색함이나 두려움보다는 부드럽고 자신에 차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녀의 말에서는 남편의 고뇌와 가정의 행복을 포함한 기존의 상식과 가치에 대한 강한 부정과 긍정, 과멸과 애뜻한 정 이러한 이율배반적인 것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水田宗子が 여자가 스스로의 내면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것은 남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남자와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을 때라고 말 한 것처럼<sup>79)</sup>, 오타니의 아내도 남편을 통해서가 아니라 남편과의 거리로 인하여 스스로의 내면을 찾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변모된 아내는 세상과 남편의 고뇌를 이해하거나 공유하는 것을 넘어선 곳에 생의 중심을 안착시켜 살아가게 된다.

77) 太宰 治, 앞의 글, pp.46-47

78) 太宰 治, 앞의 글, p.47

79) 水田宗子, 「女への逃走と女からの逃走」, 『日本文学』41卷11号, 日本文学協會, 1992.11, p.8

허무를 안은 공백의 상태에서 터득한 진공과 같은 무욕의 경지에서만 얻을 수 있는 홀가분함과 자유, 고뇌의 땀을 흘린 뒤의 일말의 미풍과도 같은 경지에 그녀는 놓여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렇게 그녀가 도달한 경지는 비록 남편이 지향하는 세계와는 본질적으로 다르지만 보편적이 아니더라도 남편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구원의 길이 될 수 있고, 그녀는 그 세계에서 남편과 같은 윤리도덕의 개념의 테두리를 벗어남으로서 새털처럼 가볍게 생을 살아갈 수 있는 무변무한의 자연으로서의 여성이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 IV. 다자이 후기소설에 나타난 여성상

「ヴィヨンの妻」(1947)에 나타난 아내 샷창의 허무, 체념, 무도덕 같은 경지에 이르러 가볍게 생을 살아가는 여성상은, 「父」(1947), 「おさん」(동), 「桜桃」(동), 「家庭の幸福」(1948) 등 전후지식인을 대변하는 무뢰한 남편과 그를 상대화하는 아내의 이야기란 공통적 구조를 갖는 일련의 가정소설 속에 연속되어 나타난다. 「ヴィヨンの妻」에서의 남편은 공포와 불안 속에서도 아내에 의하여 구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지만, 이 후의 작품에서는 <가정의 예고이즘> <가정의 행복>을 비난의 대상으로 삼아 무뢰한의 남편들은 스스로 자멸의 길로 치달는다.

패전은 다자이에게 절망을 안겨주었다. 중기 동안 새시대의 도래를 기대했으나 실제로 찾아온 전후의 세계는 조금도 변함이 없었다. 전후 일본이 민주국가로서 신생함에 따라 많은 일본의 지성인들이 서양의 이데올로기와 문화에 영합하는 기회주의적인 자세를 취하였다. 즉 현실로 나타난 것은 <신형편승>의 <민주주의>였고, <자유사상>이라는 <살롱사상>이었다. 이에 다자이는 강한 불만을 나타내, 그리스도와 성서와 함께 <천황폐하만세, 바로 이 외침이다. 어제까지는 낡은 것이었지만 지금은 가장 새로운 자유사상><sup>80)</sup>이라고 외치면서 스스로 보수파선언을 하고 천황을 윤리의 의표로 숭앙하는 <아나키즘풍의 도원경>(『苦悩の年鑑』)을 이상으로 세워 무뢰파 선언이 행해진다.

전후 다자이 문학에 있어서 <무뢰>는 여러 기성권위에 대한 신랄한 비판, 부정의 정신<sup>81)</sup>이였고, 그는 패전 후 걸쭉만 바뀌어서 태연히 있는 소위 진보적 문화인, 자유주의자들의 살롱사상, 편승사상을 맹렬히 비판했다. 「冬の花火」,

80) 天皇陛下万歳! この叫びだ。昨日までは古かった。しかし、今日に於いては最も新しい自由思想(太宰治, 「バンドラの匣」, 『太宰治全集8』, 筑摩書房, 1981, p.101)

81) 安藤 宏, 「太宰 治・戦中から戦後へ」, 『国語と国文学』66卷5号, 東京大学国語国文学, 1989.5, p.114

「春の枯葉」에서 도원경의 꿈이 상실되는 패전후의 일본의 현실이 그려져 있는 것처럼, 다자이의 전후의 <아나키즘풍의 도원경>의 꿈은 서서히 파종으로 치달았다.

이러한 패전후의 현실 속에서 다자이의 전후의 하강이 다시 시작되어

나의 고뇌의 전부는 그 예수라는 사람이 <자신을 사랑하듯이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한 난제 하나에 걸려 있다고 해도 좋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너희들은 고뇌하는 능력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능력도 완전히 결여되어 있다. 너희들은 애무할지 모르지만 사랑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은 모두 너희들 자신 또는 너희들의 가족의 보전 이외에 한 걸음도 나와 있지 않다.

私の苦悩の殆んど全部は、あのイエスといふ人の<己れを愛するが如く、汝の隣人を愛せ>といふ難題一つにかかっていると云ってもいいのである。一言で言はう、おまへたちには、苦悩の能力が無いのと同じ程度に、愛する能力に於いても、全く欠如している。お前たちは愛撫するかも知れぬが愛さない。おまへたちの持っている道徳は、すべておまへたち自身の、或ひはおまへたちの家族の保全以外に一步も出ない。<sup>82)</sup>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라고 말하고 있듯이 <이웃사랑(隣人愛)>을 중요시했던 그는 이웃사랑의 걸림돌이 되는 가정, 즉 <가정의 에고이즘>과 노대가들을 맹렬한 공격의 대상으로 삼았다. 즉 다자이는 전후 사회의 기만성의 상징으로 <가정>을 들었으며, <가정의 행복은 제악의 근본>이라는 생각에서 여러 작품을 세상에 발표하기 시작하여, 자신의 절망적인 심정을 투영하여 나갔다. 특히 에고이즘의 표본으로서의 가정의 단란에 대한 공포를 그린 단편소설을 중심으로 발표하였다.

「ヴィヨンの妻」와 거의 동시기의 작품 「おさん」은 무뢰한 남편과 그 아내 오산(おさん)의 이야기이다. 전후의 지식인의 고뇌를 안고 무뢰를 자행하는 남편과 그 남편을 거리를 두고 이야기하는 여성독백체의 형식 등, 「ヴィヨンの妻」와 거의 동일한 구조를 갖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저널리스트인 남편은 전후 지식인의 절망을 품고, 무뢰한과 같은 모습으로

82) 太宰 治, 「如是我聞」, 『太宰治全集10』, 筑摩書房, 1981, p.362

거리를 방황하나, 아내 오산은 패전후의 사회적 상황과는 전혀 무관하게 매일 매일의 생활과 남편의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것만이 행복이라고 여긴다. 이처럼 남성과 여성이 가정을 중심 축으로 하여 이항대립적으로 그려져 있다. 오산은 애인과 동반자살한 남편의 비보에 접하자, 자신의 마음 하나 가볍게 바꿀 수 있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혁명이다, 아내에 대한 기분하나 바꿀 수 없으면서 혁명이니 진리니 하는 것도 우스운 짓이라고 규탄한다. 오산은 결국 남편의 죽음을 통하여 현재 삶에 순응하고 그대로 받아들여 대처해 가는 강인한 여성으로 변모한다. 사회적으로 약자였던 여성이 세상이라는 강자를 향해서 도전하듯이 헤쳐 나가겠다는 호소를 느낄 수가 있다.

결국 「ヴィヨンの妻」는 남편을 포함한 「生」 전체를 넘어 「無」 상태에서 현실을 순응하면서 살아 갈려하고, 남편도 거기에 흡수되어 가는 것 같으나, 「おさん」에서는 남편이 자신의 존재에 대한 불안, 공포에 견디지 못해 자살로 생을 마감한다. 「おさん」의 남편은 가정에서 희망을 찾지 못해 가정 밖에서 죽음으로서 자신의 바라던 바를 실천하려고 했고, 이와는 반대로 아내는 더욱더 강인하게 세상을 헤쳐나가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다자이는 먼저 「ヴィヨンの妻」에서 술과 여자에 혼자 취하고 고뇌함으로서 가정을 붕괴시키는 남자를 그려서 보여주었다. 이 소설의 화자인 아내 <나>가 결미에 발하는 <비인간이라도 좋다>는 혼잣말은 의지할 곳을 상실한 다자이의 마음속의 절규처럼 울린다. 즉 「ヴィヨンの妻」에서는 여성의 강인함을 보여줌과 동시에 무뢰한 남편이 아내에게로 흡수되어 삶으로 돌아 갈 가능성의 예감을 주지만, 이후의 일련의 작품에서는 그러한 한 가닥의 희망조차 사라져 버리고 결국은 <가정>, <가정의 행복>을 비난의 대상으로 삼아 무뢰한의 남편들은 스스로 자멸해간다.

「ヴィヨンの妻」, 「おさん」에 이어 계속해서 무뢰한인 전후 지식인 남편과 그를 상대화하는 아내의 이야기란 공통적 구조를 갖는 일련의 작품으로 「父」, 「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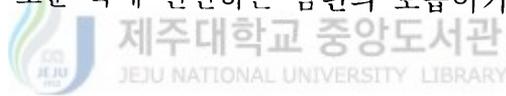
桃」, 「家庭の幸福」가 있다. 이것들은 모든 악의 근원이며 에고이즘의 표본으로서의 가정의 단란에 대한 공포를 그린 단편소설이라 할 수 있다.

난로가의 행복, 어째서 나는 이것이 불가능한 것일까. 도저히 참을 수 없다. 난로가가 무서워서 견딜 수 없다

近近の幸福、どうして私には、それが出来ないのだらう。とても、耐えられない気がするのである。近近が、こはくてならぬのである。<sup>83)</sup>

「櫻桃」는 따뜻한 난로가의 행복에 대한 공포를 이야기한다. 난로가의 행복이란 실제로는 다자이가 한없이 동경하던 대상<sup>84)</sup>이었지만 모든 기성질서에 반항하는 다자이에게 있어서 난로가의 행복이란 바로 그런 기성질서의 표본이었기에 여기서 뛰쳐나가지 않을 수 없었다. <제약의 근본>이란 관념과 <실생활의 동경>이란 모순 속에 번민하는 남편의 모습이기도 하다.

「父」에서는



아버지는 어딘가에서 의리를 위하여 놓고 있다. 지옥 같은 마음으로 놓고 있다. 목숨을 걸고 놓고 있다.

父はどこかで、義のために遊んでゐる。地獄の思いで遊んでゐる。命を賭けて遊んでゐる。<sup>85)</sup>

자신의 무뢰의 행동은 바로 기성질서에 대한 반항아의 본질이였기에 눈물을 머금고 <아이보다도 아버지가 우선>라고 외치면서 가정을 뛰쳐나가는 아버지의 모습이 형상화되어 있다.

이들이 가정을 두려워하면서 그 틀에서 뛰쳐나오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난로가의 가족의 단란함이 무섭기 때문이고, 의리를 위해서 놀기 위해서이며, 자식보다 이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의 위치 즉 아버지나

83) 太宰 治, 「櫻桃」, 『太宰治全集9』, 筑摩書房, 1981, p.67

84) 나의 시선은 언제나 사람들의 <집>쪽에만 향하고 있었다. (私の視線は、いつも人間の「家」のはうに向いてゐる。)(太宰 治, 「家庭の幸福」, 『太宰治全集9』, 筑摩書房, 1981, p.389)

85) 太宰 治, 「父」, 『太宰治全集9』, 筑摩書房, 1981, p.69

남편으로서의 겉모습을 그대로 지닌 채 가정을 나와 버린다. 이런 내면과 외면이 융합할 수 없었기에 그들은 괴로워했으며 이것은 다자이의 전후의 모습이 투영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들은 자신들이 두려워하는 가정을 나와서 술집에서 거리에서 무뢰한으로 행동하지만 결국 자신의 존재를 찾지 못한 채 가정의 안과 밖에서 헤매면서 죽음을 향해 걸어가게 된다.

이러한 무뢰한의 남편들은 아이를 껴안은 아내 속에 모성이 갖는 부동의 강함을 발견하고, 女類들이 자기의 생의 존재를 조금도 의심 없이 가정이란 울타리를 지켜나가는 모습에 불가사이함을 느끼고 경탄과 공포의 감정을 동시에 갖는다. 결국 그녀들은 남편이 나가버린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가정을 지킨다. 즉 무뢰한의 남편들과는 달리 그들의 아내들은 이러한 끊임없이 고뇌하고 생각하는 남자의 세계와는 달리 자신만의 현실체험을 통해서 절망을 헤치고 나온 밝은 빛과 같이 강인하고 어떻게 보면 허무하기까지 한 자세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전후 다자이 문학 안에 많은 남편(남자)이 자멸하여 가지만 존재에 대한 의문 없이 매일의 생을 살아가는 여자들에 대하여 다자이는 공포를 느낌과 동시에 동경도 품었을 것이다. 그녀들의 강인한 생명감에 하나의 구원의 길을 발견하였지만 다자이는 스스로 그 길을 버렸다. 구제에 의해서는 자기 개인의 행복과 <가정의 행복> 밖에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작가는 왜 <가정의 행복>을 부정한다는 형태로 반대로 거기로 구애받는 것을 써 가지 않으면 안되었을까. 「죄」, 「수치」, 「신」의 존재를 점차 작중에 도입하고 끝없는 「차이」를 허구화해 나감으로서 스스로를 벌하는 비호자로서 「가정」을 찾으려고<sup>86)</sup>하였지만, 이것은 공격대상이 자신의 가정, 자기자신으로 향했다는 의미이고, <무뢰과 선언>이 자기내부를 향한 것이며, 전후의 절망적 꿈을 상징하고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

86) 安藤宏, 「太宰治・戦中から戦後へ」, 『国語と国文学』66卷5号, 東京大学国語国文学会, 1989.5, p.114-115

## V. 결 론

다자이의 삶과 문학의 출발점인 동시에 귀착점이었던 「여성」(혹은 「모성」), 「가정」의 문제는 <선택받은 자의 황홀과 불안>이라는 다자이의 굴절된 근원의 의식과의 연관되어 평생 그와 밀착해 있었다. 따라서 다자이 문학의 기초를 이루는 이러한 문제는 그의 문학의 비밀을 푸는 키워드 구실을 할 수 있다고 본다.

거시적인 역사의 선위에서 보면 우리와 동시대인인 다자이의 문학이, 20세기의 초, 중반의 시대가 직면한 인간의 운명과 고뇌를 표상하고, 또한 자신의 생애 속에 수용하였다는 점에서, 그의 굴절과 방황과 그리고 초현실적인 모랄을 회구한 그의 갈망은 우리와 전혀 무관하지 않다.

그의 문학 속에 담겨져 있는 인간의 내면세계 및 외계에 대한 인간의 반응과 저항의 실상을 탐구해 보기 위한 기초작업의 일환으로 본고에서는 우선 인간존재의 근원적인 것이 될 수 있으며, 남성의 기본적인 의식구조의 중요한 대목이라 할 수 있는 「여성」, 특히 전후에 변화하는 그의 여성상에 시점을 모아 살펴보았다.

다자이는 생가의 영광과 수치를 그 인생과 문학에 공존병립 시킴으로서 평생 황홀과 불안의 갈등에 사로잡혀 있었으며, 유년기의 특이한 성장과정과 가정의 환경에 기인한 <母恋い>의 정신풍토는 또한 그 특유의 여성관 및 가정관을 갖게 하였다고 충분히 추측할 수 있다. 유년기의 유달랐던 가정환경이 그로 하여금 모성을 다른 사람보다도 많이 갈구하게 했으며 생모에게서 느끼지 못했던 모성을 숙모 기에나 유모 다케에게서 얻었다. 그가 이상적으로 그리던 영원한 모성적 존재는 「冬の花火」, 「バントラの匣」, 「斜陽」 속에 형상화되었지만, 작가의 시대적 고통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해, 이러한 모성적 존재인

어머니들은 더럽혀지거나 쇠약해져서 죽어가고, 따라서 주인공의 유토피아의 꿈도 붕괴되고 좌절하게 된다. 주인공들의 좌절은 곧 작가 다자이의 좌절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그러나 이러한 작가의 정신풍토는 중기를 지나 후기에 들어서면서 패전이라는 시대적 상황과 부딪치자, 황량한 자학의 마음을 갖게 되고 자기존립의 기반을 상실해 버린다. <여성독백체>로 쓰여진 일련의 작품들 중에서 평온과 안식을 주는 모성적인 존재로서의 여성과는 달리, 「男女同權」이나 「カチカチ」 등에서는 흑독하고 박정하며 잔인한 불가해한 여성들이 회극적이고도 위압적으로 그려졌다.

그리고 전후, 특히 작가의 죽음을 앞둔 얼마 전부터 기성의 윤리와 도덕을 파괴하고 무변무한한 자연과 같은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도덕혁명을 주장하고 나선 여성과, <가정>이 붕괴된 상황에서 강인한 생명력을 갖는 새로운 여성을 그린 작품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새로운 여성상의 조형의 계기를 구일본문화의 멸망기라는 시대상과, 막연하나마 새로운 것의 도래를 기대하는 다자이에서 구해야 할 것이다.

인간의 삶 속에 인위적인 일체의 중압감과 구속으로부터 해방되어 절대자유의 경지를 구현하기 위한 도덕혁명을 일으키는 「斜陽」의 가르코, 신의 존재, 죄의식, 전후 현실에 대한 고뇌 속에서 가정에서 이탈하여 거리에서 헤매는 무뢰한 남편과는 대조적으로 과장된 행동도, 심각한 표정도 없이 내일의 일을 근심하지 않고 세상의 윤리와 도덕, 풍습에 조금도 구애되지 않는 체념에 가까운 강인함을 보여 준 「ヴィヨンの妻」의 아내는 새로운 타입의 여성상이라 할 수 있다. 이후의 일련의 여성독백체의 여성들도 「ヴィヨンの妻」의 아내와 같이 새털처럼 가볍게 현실의 무게, 삶의 무게를 털어 버린 경지에 이른 모습을 보여준다. 이에 반해 그녀들의 남편들은 가정을 두려워하고 항상 밖에 머물며, 현실에 안착하지 못한 채 시대와 존재에 고뇌하고 방황하다가 결국을

죽음으로 치닫는다.

이렇게 전후 다자이의 문학에는 <가정>, <집>을 구심으로 하는 윤리도덕을 파괴하거나, 그것이 붕괴된 상황에서 새로운 행복을 구하는 신형의 여성상의 조형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다자이는 기성의 윤리도덕이 핵심인 문화권인 가정을 저버리지 못하는, 누구보다도 예민한 윤리감각의 소유자였다. 그러한 점을 감안할 때 다자이는 새로운 윤리와 기존의 윤리의 사이에서 갈등과 고뇌 끝에, 그리고 전후사회에 대한 절망 끝에 자신의 생과 문학을 자살로 마감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 参 考 文 献

## 【텍스트】

太宰 治, 『太宰治全集』, 筑摩書房, 1981

## 1. 韓国文献

### 【単行本】

다자이 오사무 (유숙자 역), 『만년』, 한림신서, 1997

다자이 오사무 (허 호 역), 『인간실격』, 웅진출판사, 1995

시몬느 드 보부아루 (조홍식 역), 『제2의 성』, 을유문화사, 1986

에구사 미쓰코 (서은혜 역), 『여성의 눈으로 본 일본 근대문학』, 전주대학교  
출판부, 2000

엘리자베스 클레망 外 (이정우 역), 『철학사전』, 동녘, 2000

프랑수아비용 (송면 역), 『프랑수아 비용』, 동문선, 1995

### 【論文】

김경희, 「太宰治 『桜桃』論」, 『日本語文学』제13집, 日本語文学会, 2000. 12

\_\_\_\_\_, 「太宰治の『ヴィヨンの妻』における女性観」, 『韓日語文論集』제4집, 韓日  
語日文学会, 2000. 8

金鳳伊, 「다자이오사무의 『津軽』론」, 한국의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95

박영준, 「太宰治와 人間失格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대학원 석사논문, 1990

이재석, 「다자이오사무 체념의 1945년」, 『日語日文学研究』, 韓國日語日文学会,  
1999

하정민, 『太宰治の複合的人間形成と死』,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91

## 2. 日本文献

### 【単行本】

- 浦田義和, 『太宰治』, 法政大学出版局, 1986
- 江口圭・外, 『日本歴史20 現代3』, 岩波書店, 1963
- 奥野健男, 『太宰治研究 I その文学』, 筑摩書房, 1982
- , 『太宰治論』, 新潮社, 1984
- 桂 英澄, 『太宰治研究 II その回想』, 筑摩書房, 1982
- 神谷忠孝・安藤宏編, 『太宰治全作品研究事典』, 勉誠社, 1995
- 小林利裕, 『太宰治』, 近代文学社, 1995
- 島田昭男, 『昭和作家論 一異端・無頼の系譜』, 審美社, 1977
- 田中良彦, 『太宰治聖書知識』, 朝文社, 1994
- 鶴田欣也編, 『日本文学における<他者>』, 新曜社, 1994
- 日本近代文学館編, 『日本近代文学大事典』, 講談社, 1977
- 日本文学協会編, 『日本文学講座6 近代小説』, 大修館書店, 1998
- 日本文学研究資料刊行会編, 『日本文学研究資料叢書 太宰治』, 有精堂, 1970
- 松原新一, 『戦後日本文学史・年表』, 講談社, 1978
- 三好行雄・竹盛天雄, 『近代文学6 -昭和文学の実質』, 有斐閣, 1977
- 三好行雄編, 『別冊国文学NO7 太宰治必携』, 1980.9
- 山内祥史, 『太宰治論集 同時代編』 第1巻・第5巻, ゆまに書房, 1992
- 山崎富栄, 『太宰治の愛と死のノート』, 女性文庫, 1995

## 【論文・雑誌】

- 赤木孝之,「太宰治論 -<無頼波宣言>の周辺」,『解釈と鑑賞』59巻9号,至文堂,1994.9
- 浅田高明外,「評伝・太宰治の問題点」,『解釈と鑑賞』58巻6号,至文堂,1993.6
- 安藤 宏,「『ヴィヨンの妻』試論」,『解釈と鑑賞』53巻6号,至文堂,1988.6
- \_\_\_\_\_,「太宰治・戦中から前後へ」,『国語と国文学』66巻5号,東京大学国語国会,1989
- \_\_\_\_\_,「太宰治論一再検討のための覚え書」,『解釈と鑑賞』61巻5号,至文堂,1996.6
- \_\_\_\_\_,「太宰文学における<女性>」,『解釈と鑑賞』64巻9号,至文堂,1999.9
- 石川まなみ,「愛と苦悩のあいだ-人間失格をめぐる-」,『国文学』,学灯社,1980
- 江種満子,「『斜陽』の女性-かず子を中心に」,『解釈と鑑賞』46巻10号,至文堂,1981.10
- \_\_\_\_\_,「『ヴィヨンの妻』-妻の「私」」,『国文学』44巻7号,学灯社,1999.6
- 大久保典夫,「戦後太宰治の社会観」,『解釈と鑑賞』53巻6号,至文堂,1988.6
- 荻久保泰幸,「無頼派の文学:昭和二十一年、二年-」,『解釈と鑑賞』59巻9号,至文堂1994.9
- 神谷忠孝,「ヴィヨンの妻」,『国文学』32巻1号,学灯社,1987.1
- 河村政敏,「昭和二十二年」,『解釈と鑑賞』58巻6号,至文堂,1993.6
- 佐藤泰正,「太宰治の無頼派宣言」,『解釈と鑑賞』53巻6号,至文堂,1988.6
- 竹腰辛夫,「評伝太宰治」,『解釈と鑑賞』52巻6号,至文堂,1987.6
- 田中良彦,「太宰治とキリスト教」,『解釈と鑑賞』50巻10号,至文堂,1985.11
- 千葉正昭,「太宰とキリスト教」,『国語と国文学』64巻3号,東京大学国語国文学会,1987
- \_\_\_\_\_,「太宰の女性」,『国文学』32巻1号,学灯社,1987.1
- 都築久義,「戦争と太宰治」,『解釈と鑑賞』48巻9号,至文堂,1983.6
- 畑佐章子,「『ヴィヨンの妻』論」,『解釈と鑑賞』59巻9号,至文堂,1994.9
- 伝馬義澄,「女生徒」,『解釈と鑑賞』64巻9号,至文堂,1996.6

- 東郷克美, 「リベルタン宣言—戦後の倫理」, 『国文学』42巻5号, 学灯社, 1977.5
- \_\_\_\_\_, 「太宰治キーワード」, 『国文学』36巻4号, 学灯社, 1991.4
- 東郷克美外, 「太宰治をどう読むか」, 『解釈と鑑賞』52巻6号, 至文堂, 1987.6
- 鳥居邦朗, 「『人間失格』論から太宰論へ」, 『解釈と鑑賞』46巻10号, 至文堂, 1981.10
- \_\_\_\_\_, 「太宰治—昭和八年～十二年—」, 『解釈と鑑賞』50巻10号, 至文堂, 1985.11
- \_\_\_\_\_, 「太宰治論—昭和21年～23年」, 『解釈と鑑賞』53巻6号, 至文堂, 1988.6
- \_\_\_\_\_, 「太宰治論」, 『解釈と鑑賞』53巻6号, 至文堂, 1988.6
- 長部日出雄, 「太宰治と故郷・家:もう一人の母」, 『解釈と鑑賞』52巻6号, 至文堂, 1987.6
- 原 子朗, 「太宰治における<をんなの言葉>」, 『国文学』32巻1号, 学灯社, 1987.1
- 伴 悦, 「『ヴィヨンの妻』試論」, 『解釈と鑑賞』48巻9号, 至文堂, 1983.6
- \_\_\_\_\_, 「太宰治の女性観」, 『解釈と鑑賞』64巻6号, 至文堂, 1996.6
- 水谷昭夫, 「太宰治と女性」, 『解釈と鑑賞』42巻12号, 至文堂, 1977.12
- 水田宗子, 「女への逃走と女からの逃走」, 『日本文学』41巻11号, 日本文学協会, 1992.11
- 宮原昭夫, 「『ヴィヨンの妻』考」, 『国文学』42巻5号, 学灯社, 1977.5
- 山口九一, 「太宰治『待つ』の意識構造に潜む愛の不毛性」, 『神戸産手女子短大紀要』, 1990
- 山崎正純, 「太宰治における<他者性>の問題について—その言語的省察と初期作品」, 『国語と国文学』69巻4号, 東京大学国語国文学会, 1992.4
- 渡部芳紀, 「太宰治の『ヴィヨンの妻』」, 『解釈と鑑賞』40巻12号, 至文堂, 1975.12
- \_\_\_\_\_, 「<女性>—女の独白形式」, 『国文学』36巻4号, 学灯社, 1991.4

〈Abstract〉

**An Image of Women appeared in <Dazai Osamu> literature**  
-centering on the 「ヴィヨンの妻」-

**Baik, Yun-Joo**

**Japanese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Jin, Eun-Sook**

Problems of 「Woman」 (or 「Maternity」) and 「home」, which were the returning point at the same time the starting point of Dazai's life and literature, were closely related to his whole life in connection with his reflected conscious of the origin, <The anxiety and ecstasy of a selected person>. Therefore, these problems which were the basis of his literature were the keyword to reveal the secret of his literature.

As one way of basic work for exploring the real aspects of resistance and reaction of human about the inner world and the external world in his literature, this study reviewed 「Women」 which was one important part of basic conscious structure of man, especially focusing on the viewpoint of his image of woman which began to change postwar. First of all, after classifying the image of woman appeared in his literature into three types and grasping the whole stream about it, it reviewed the image of woman around the 「ヴィヨンの妻」 which was valued as the masterpiece of woman monologue style after the war. Also it reviewed the image of woman appeared in 「Father」(1947), 「おさん」(1947), 「櫻桃」(1948), and 「家庭の幸福」(1948) created in the same age, and the characteristic of his post literature.

By coexisting the glory and shame of his birth-home in his life and literature, he was captivated by ecstasy and conflict of anxiety all his life. His mental climate of <母戀い> due to peculiar growth background and his home environment resulted in peculiar value of woman and home. It led to long for maternity than other people.

---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2001.

However, entering to the post period and experiencing a failure in war which was a situation of the times, his mental climate had desolate self-torture mind and lost the basis of his existence. On the works written woman monologue style, unlike the maternal existence to give peace and comfort, woman was described overbearingly and farcically as a stern and miserable existence in the 「男女同權」 and 「カチカチ山」. After postwar, especially before a few days of his death, two kinds of women were described in his works. One was a woman who destroyed existed ethics and moral, and insisted on moral revolution in order to live free life like unchanged and definite nature. The other was a woman who had strong life force when the <home> was collapsed. On the contrary to a vagrant husband who roam around the streets escaping from the home in the suffering on the real life of postwar, guilty conscious, existence of God, and Gazko of 「斜陽」, which rise the moral revolution in order to carry out the absolute freedom escaping from the restriction and artificial pressures in human life, a wife of 「ヴィヨンの妻」 was an image of woman of new type in which she showed strongness close to the resignation not adhering to ethics, moral, and customs and not showing the worries about the future without serious facial expressions and exaggerated behavior. Since then, women of woman monologue style also showed an appearance who threw away easily the weight of life like a feather and a wife of 「ヴィヨンの妻」. On the other hands, their husbands eventually became to die suffering from the times and existence and wandering because they were afraid of home, always stayed outside, and could not reach the real life. His literature in postwar came to reach the modeling of an image of woman in which it destroyed ethic moral around the <home> and <house>, and reached new happiness under its collapsed situation. However, he was an owner of sensitive ethic sense not giving up the home which is the essence of ethic moral. Considering it, because of suffering, conflicting between new ethics and old ethics, and despairing on the postwar society, it assumed that he ended his life and literature with suicide.